예술과 숲만남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2024.12+2025.01 VOL.171

SPECIAL
가족의 하모니,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하는 성장과 소통의 가치

STAGE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송년 음악회 프리뷰
〈2024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 리뷰

INSIGHT
뉴욕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GGAC STORY
경기아트센터 소식과 공연일정

ggac.or.kr

기쁨의 여정旅程

이제 곧 무대 위를 수놓을 음악은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던 행복과 자유의 선율이 될 것이다.
왼손 피아니스트 이훈의 인생, 그의 무대가 그러한 것처럼
경기도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피, 땀, 눈물의 시간을 오롯이 겪은 뒤
악기를 연주하며 합을 이루는 무대는
쏟아지는 빛처럼 찬란한 광경으로 깊고 절절한 울림을 선사할 것이다.
지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감동의 여정이 시작된다.

SPECIAL

06 **View**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하는
성장과 소통의 가치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행보,
그 중심에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10 **Theme**
음악의 힘, 나눔의 가치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홍보대사인
피아니스트 이훈, 김경란 아나운서가 전하는
기대와 희망의 메시지

14 **People**
모두 함께, 마음으로 떠나는 여정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박성호

STAGE

20 **Preview 1**
2024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레퍼토리 시즌
〈사유하는 계절〉& 2024 송년음악회
연말, 풍성한 무대의 즐거움

26 **Preview 2**
경기도무용단 〈세종〉
춤의 드라마로 펼치는 시간 여행

Theme p10-13

28 **Preview 3**
오페라〈라 보엠〉
예술과 낭만의 대서사시

30 **Review 1**
〈2024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
'피아노들'의 교향곡

34 **Review 2**
경기필하모닉마스터즈 시리즈 IV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악장과 악단의 빛나는 하모니

36 **Review 3**
〈CBS 음악 FM 최강희의 영화음악
1주년 기념공개방송〉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응원하는 따뜻한 무대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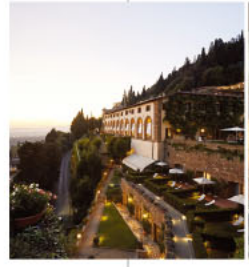
Artist Talk p52-55

INSIGHT

40 **Art and the City**
All I Want for Spectacular Christmas!
뉴욕에서 크리스마스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볼거리와 문화이야기를 전해왔다.

46 **Attraction**
우아한 시간의 낙원
현대적 호텔로 거듭난 고대 건축물

52 **Artist Talk**
무대를 향해 마주보다
경기아트센터의 '연극 교실'을 통해 만난
경기도극단의 연극배우 이슬비와
수강생 임운주가 말하는 내 삶의 연극



Attraction p46-51

Art and the City p40-45

56 **On & Off**
읽고 듣고 사유하다
문학 신간 세 권과 책 읽어주는 유튜브 채널

58 **Art Scene**
Light and Shadow
국내외에 열풍을 몰고 온
한국문학과 K-팝의 빛과 그림자

GGAC STORY

62 **Zoom In**
영상으로 만나는 공연예술
'경기아트온ON'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아트센터 대외사업팀 김준호 PD를 만났다.

64 **GGAC News**
이달의 경기아트센터 소식

66 **Calendar**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의 공연·전시 일정

68 **Epilogue**
원손의 품격

〈예술과 만남〉을
e-book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격월간 〈예술과 만남〉 2024년 12+2025년 1월호
통권 171호 ISSN 2234-5949

발행처 경기아트센터
발행인 서춘기
편집주간 김원경
편집장 이홍섭
기획·취재 조연주, 김미애, 하경현, 박선우, 김준호,
신한빈, 안수용, 임주원, 이승현, 임준, 정재영, 천호철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전화 031-230-3244
이메일 magazine@ggac.or.kr
홈페이지 www.ggac.or.kr
편집 디자인 이우하(A.u.H)

〈예술과 만남〉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박성호 지휘자와 40명의 단원이 처음 마주한 자리. 이제 막 건네받은 악보를 앞에 펼친 채
저마다 악기를 손에 들고 음악을 연주하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표정에는 열의와 기대감이 가득했다.
경기아트센터를 비롯한 도내 곳곳에, 우리 모두의 일상에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세상에 하나뿐인 하모니가 울려 퍼진다. 글 편집부 사진 박우진

HARMONY FOR ONE AND ALL

UN이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 창단식을 갖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경기도 장애 예술인의 예술적 역량 개발과 다양한 연주기회를 통해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인재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월급제 정규 단원으로 운영되는 다른 공공기관의 장애인 오케스트라와는 그 방식이 다르다. 먼저 도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지원자 가운데 음악적 잠재력이 있는 단원 40명을 선발해 오케스트라 구성을 마쳤고, 경험과 실력을 갖춘 박성호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끈다. 매주 2회 개별 악기 교육과 눈높이를 맞춘 전문 강사의 1:1 또는 1:2 집중 지도를 통해 실력 향상과 자립심을 돕고, 경기도예술단 등 여러 오케스트라와 협연 및 공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음악을 통한 내적 성장을 독려한다. 그야말로 음악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특별한 장을 마련한 것이다. 더 많은 장애 예술인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2년 기수제로 운영하며, 자유롭고 활발한 예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타 오케스트라와 겸임도 허용한다.

무엇보다 도민이 후원하고 함께 누리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오케스트라를 목표로 도민과 함께 운영해 나가는 '소통의 오케스트라'로 다가갈 계획이다. 도민은 다양한 기부 플랫폼을 통한 후원 및 기부는 물론 작곡과 편곡, 합주에 참여하거나 사진·영상 촬영 등의 재능 기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의 예술 활동과 성장을 응원할 수 있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서포터즈 네이버 카페(cafe.naver.com/ggsupport)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ggableorch_official)을 통해 단원 소식과 공연 일정, 활동 후기 등을 알 수 있으며 후원활동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 9월 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계획 발표식에서
취지를 밝히며 설명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하는 성장과 소통의 가치

2024년은 경기도와 경기도민에게 유의미한 해다.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 발표와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으로
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경기도의 행보,
그 중심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장애인을 향한 따스한 관심과 지원이 있다.

평소 장애인을 위한 국내의 상황과 복지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내와 장애인 단체에서 봉사를 오래 했어요. 봉사를 하게 된 계기는 공직 생활을 할 때 가깝게 지내던 직원의 아이가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자주 만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공부할 때도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봉사 활동을 계속했어요. 공직 생활을 그만두고 대학 총장을 할 때도 매주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저 학교에 가면 정말 차별 없이 많은 기회를 주니 저 학교 가자"라고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장애인은 불쌍하니까 도와야 한다? 그건 아니에요. 장애인을 양보하고 배려해야 하는 약자로 인식해서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려움을 극복한 영웅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도 그 관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우리 이웃의 한 명이자, 동등한 인격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평범한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것, 사회적 차별 없이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저와 경기도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이런 경험과 관심을 반영한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난 4월에 발표한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사회, 교육·문화·체육·관광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불편을 겪지 않는 사회,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회,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권리와
> 자유를 누리며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
> 그 꿈이 우리 경기도에서 실현되는 것을
> 꼭 보고 싶습니다."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사회적 돌봄이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어가자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65개 정책에 2조 9,21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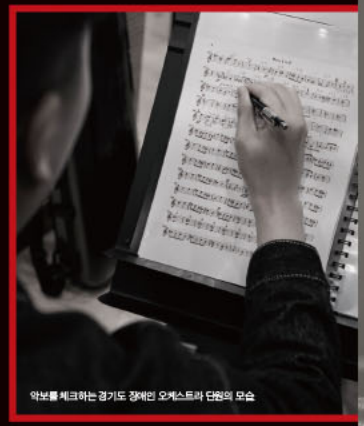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창단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시작부터 기적이었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로 취임하면서 국내외 귀빈을 초대하는 행사에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들려드렸습니다. 많은 외국 손님이 장애인 연주단의 공연을 보고 감동했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분까지 계셨지요. 그래서 이 훌륭한 공연을 경기도민 모두에게 선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아이디어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이영봉 의원님과 청년 도의원이신 장한별 의원께서 제게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을 때 무척 반가웠습니다. 곧바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제안이었죠. 여러 종류의 악기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것처럼, 도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만들어낸 기적의 하모니가 바로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입니다. 정치에 빗대면 협치의 소중한 결과물이지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추구하는 지향점은 뭘까요? 대한민국에는 많은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대다수가 민간이 운영하죠. 시각장애인으로만 이루어진 앙상블,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으로 이뤄진 오케스트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장애예술인 육성을 위해 만든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민간 오케스트라와 상생하면서 더 많은 장애 예술인에게 기회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인재 양성형' 오케스트라, '가수제' 오케스트라입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만든 이 오케스트라가 다른 시도로 확산되어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이겠죠.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어느 무대에 서도 전혀 손색없는 실력을 갖춰가리라 기대합니다.

11월 13일 모인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첫 합주 연습을 했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큰 특징은 인재 양성형 오케스트라, 도민 참여형 오케스트라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 오케스트라는 대부분 음악적 수준이 일정 궤도에 오른 숙련된 연주자를 단원으로 뽑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은 2년 동안 '기수제'로 활동하며, 집중 음악 교육을 받고 다양한 공연을 통해 연주 경험도 쌓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과 경험은 비단 연주자로서 성장하는 것뿐 아니라 삶의 자산이 되고, 향후 더 좋은 기회로 연결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새로운 장애인 연주자가 2기로서 꿈을 이어갑니다. 경기도는 인재 양성형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통해 더 많은 장애 연주자에게 고른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는 영원히 지속 가능한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도의회와 협력해 탄생했고 운영 예산도 확보했지만,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오케스트라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방식이 '도민 참여형'입니다. 참여 방식은 다양합니다. 기부금을 내도 되고, 재능 기부도 환영합니다. 장소 제공은 물론 무대를 함께 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종의 서포터즈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도민이 각자 기부를 통해 장애 예술인을 응원하고, 장애 연주자는 도민의 성원에 힘입어 함께 성장하며, 기부자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 초대 등 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로 이어지는, 늘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의 오케스트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계기로 경기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도지사가 되고 나서 사무실에 개인적으로 구입해 걸어놓은 그림이 두 점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벤치에 앉아 얘기를 나누는 풍경이고, 다른 하나는 한 사람이 대야에 발을 담그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앞 그림은 발달장애인이, 뒤 그림은 중증 지적장애인이 그린 것입니다. 제 사무실을 방문하는 분들께 화가와 그림에 대해 설명해 주면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예술을 통해 받는 감동은 기교나 소재의 독특함에서 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AI도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창조한, '삶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예술 작품만이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음악으로 들려주는 이야기와 감동도 그에 못지않을 겁니다. 한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귀 기울이기는 남에게 나를 온전히 내맡기는 일입니다.



악보를 체크하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의 모습

'나'를 비우는 경청을 통해 결속과 우정이, 나아가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장애인을 '어떤 영역에서 자유가 제한된 분들'이라고 정의 내린다면, 저 또한 장애인입니다. 경제적 자유가 제한된 분, 생각의 자유가 제한된 분 등 우리 모두 일종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면서 돌보고 기대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겠지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음악적 성장을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경기도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 신뢰도 커나가길 기대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창단하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어떤 점을 기대하시나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경기도민의 오케스트라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키워주시는 만큼 도민과 더불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로 인한 불편보다 더 극복하기 힘든 것이 사회적 편견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길을 더 넓혀가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하고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경기도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 꿈이 우리 경기도에서 실현되는 것을 꼭 보고 싶습니다.

음악의 힘, 나눔의 가치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홍보대사인 피아니스트 이훈과
김경란 아나운서가 전하는 기대와 희망의 메시지.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뿐 아니라
그들의 배움과 활동을 응원하게 될 우리 모두 두 홍보대사가
경험하고 걸어온 인생과 그 속에 깃든 이야기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가치를 발견할 것이다.

왼손 피아니스트가 전하는 기쁨

무대 위에서 왼손만 건반 위에 올려둔 채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는 피아니스트 이훈의 모습은 그저 잠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금은 한쪽 손만으로도 멋진 선율을 들려주지만, 그는 10여 년 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다. 어릴 적부터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우며 선화예술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독일 유학길에 오른 그는 다양한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쥘 만큼 촉망받는 피아니스트였다. 그 후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중 갑자기 불행이 찾아왔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된 것이다. "그게 2012년 8월이었고, 그해 12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피아노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2년 후 지도교수님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양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많지만 왼손으로만 치는 사람은 한국에 이훈밖에 없을 거라고. 그 말씀을 듣고 왼손으로 건반을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왼손만으로 피아노를 치니 처음엔 영망이더군요. 그런데 마비된 오른쪽 상태가 나아질수록 왼손의 움직임도 더 좋아졌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재활에 전념하며 음악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은 그는 2016년 첫 독주 무대를 가지며 음악 인생 2막을 시작했다. 처음엔 조금만 건반을 쳐도 왼손이 아프고 불편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힘을 빼고 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며 노련함도 생겼다. "11월 5일에 독주회를 열었는데 정말 기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비로소 정상 궤도에 오른 것 같아요.(웃음) 사고 이전에는 피아노를 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 때문에 뇌졸중이 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고 후 피아노를 계속 치면서 극복했어요."

그는 이 모두가 '음악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경험에 따르면 음악이야말로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 치유력을 지녔다. "19세기 러시아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알렉산드르 스크랴빈은 오른손을 다쳐 왼손 연주를 위한 프렐류드와 녹턴을 썼는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고통이 묻어나요. 아름답고도 슬픔이 담겨 있는 곡이죠. 그 음악을 들으며 많은 힘과 위로를 얻었어요. 저도 처음엔 모든 것이 싫어지고 아무 말도 못 할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피아노를 치면서 힘을 빼고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연주뿐 아니라 말하는 것, 움직이는 것 모두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엔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도 사용했는데, 2년 전부터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고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뇌졸중이 가져다준 기쁨'이라고 표현했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창단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정말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들을 만나고 활동을 알리게 될 홍보대사가 되어 흥분돼요. 장애를 극복하고 음악을 하는 제 경험담도 들려주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콩쿠르에서 훌륭한 연주를 들려준 모습을 보고 눈물을 쏟은 적이 있어요. 어떤 장애를 갖고 있든, 또 음악적 재능 유무에 상관없이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로 기쁨이 되리라 생각해요. 치유와 성장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훈은 장애를 겪은 경험자로서 그들이 음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돕는 것이 자신의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긍정의 힘과 새롭게 느끼게 될 기쁨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싶다. "10년 전만 해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이 많았지만, 지금은 훨씬 좋아졌어요. 따뜻한 시선을 갖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분이 늘었죠.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되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는 약간의 무심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진짜 필요할 때 도움을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도 2025년부터 공연을 할 텐데,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이라서' 못할 것 같다는 선입견 없이 공감해 주기를 바라요."

12월 3일, 활동의 포문을 열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오래도록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피아니스트 이훈. '왼손 피아니스트'로서 기적을 일군 그의 인생이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놀랍도록 빛나는 여정을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기회의 무대, 그 감동을 함께 나누다

또 한 명의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홍보대사인 김경란 아나운서는 오랜 시간 '나눔'의 행보를 이어왔다. 2010년 아이티 대지진 현장, 캄보디아와 스리랑카 등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꾸준히 봉사 활동을 해왔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2010년 말부터 현재까지 맡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로서 소외된 아이들을 접하며 어떤 시기에 무엇을 경험하고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체감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경기도장애인 오케스트라 홍보대사로 동참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장애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성장을 돕는 인재 양성형 운영 방식은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굉장한 특장점이에요. 다섯 차례에 걸쳐 아이티 대지진 봉사에 참여했을 때 아주 놀라웠던 점이 있는데, 집 안에조차 못 들어갈 만큼 큰 트라우마를 겪으며 의식주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 가장 원하는 걸 물어보면 학교에 가고 싶다는 거였어요. 기회를 잃어버린 아들에겐 그만큼 배움에 엄청난 갈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김경란 아나운서는 이전에도 장애인으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몇 차례 진행한 경험이 있다. 악기를 연주하며 협업하는 과정에서 질서를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접하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에 적지 않은 놀라움을 느꼈다. 그녀는 여러 경험을 통해 나눔의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 또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경기도에서 많은 분의 제안을 귀담아듣고 장애인들이 예술적·음악적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과 연주 기회를 제공하는 장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연주가 아니더라도 그저 그들이 해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랑스럽고 기쁜 마음이 들 거예요. 비장애인 연주자보다 열 번, 스무 번 더 연습하느라 훨씬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겠지만,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 모두 놀라운 감동을 전해 줄 거라 기대합니다."

"나눔이 있는 삶이 주는 놀라운 점은 내가 가진 것 하나를 덜어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더 커지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김경란 아나운서의 말처럼,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인재 양성형 운영을 통해 누군가는 새로운 재능을 발견할 것이고, 삶의 의미를 찾는 이도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을 경험하면서 삶의 영역이 더 넓어질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귀하고 감사함과 감동으로 가득 찬 순간이 된다. "그 어떤 예술 활동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혼자가 아니라 하모니를 이뤄야 하니까요.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진 일이죠.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단원 모두 도전하는 마음을 갖게 된 순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게 아닐까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이 순간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뭔가 삐걱대거나 여기 있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게 된 장애인 모두 이미 자격은 충분해요."

김경란 아나운서는 의미 있는 취지로 이어나갈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풍성해지는 삶과 그 가치에 대해 '아나운스announce'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함께 응원하기 위해 많은 분에게 알리고, 또 돕고 싶어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커뮤니티인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경기도민 누구나 기부와 참여가 가능해요. 물품 기부와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마음 회원'과 1년간 매달 1만 원 이상 후원하는 '동행 회원'이 되어 많은 분이 동참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하죠."

꾸준히 봉사 활동을 해온 그녀에게 '나눔의 가치'가 무엇인지 물었다. "먼 훗날 마지막으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 혼자만이 아닌, 나로 인해 다른 누군가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삶을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결국 도움을 받는 사람만이 아닌 '우리'를 위한 길이 아닐까요. 봉사를 하면 내 삶 또한 훨씬 풍성해지거든요. 실제로 오랫동안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에게선 여유와 아름다움, 멋스러움이 묻어나요. 삶에 나눔이 더해졌을 때 생기는 놀라운 점은 내가 가진 것 하나를 덜어내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나눔이란 뭔가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같이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눔이 그리 거창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대화였다. 이제 우리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우리 삶도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변화 말이다. "혼자 하려면 금세 힘이 빠지고 동기부여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많은 분이 동참하면서 서로 좋은 자극을 주고받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눈다는 것, 진정 멋진 삶 아닐까요." 글 이정주 사진 박우진

PARK SUNG HO

모두 함께, 마음으로 떠나는 여정

박성호는 첫걸음을 떼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최고의 적임자다.
현역 오케스트라 연주자이면서 오랜 기간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으며 뜻깊은 2회 차 인생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경험과 열정, 진정한 마음이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음악적·내면적 성장에 선한 영향을 미치기를, 그리고 모두의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지휘자라는 의미 있는 일에 함류하시게 되었네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첫 지휘자인 박성호입니다. 10월 21일 임용되어 앞으로 2년간 맡게 됩니다. 본업은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트롬본 연주를 하고 있고,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겸직이 가능해서 병행할 예정이고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다른 장애인 오케스트라와 다른 특별한 부분은 무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인재 양성형'으로 음악을 통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오케스트라인 점이 특별해요. 수준 높은 교육을 한 뒤 공연도 하게 됩니다. 단원들도 겸직이 가능해요. 현재 다른 단체의 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2년간 기량을 키운 뒤 원래 소속되었던 곳에서 활동을 이어가거나 다른 연주 활동을 할 수도 있죠. 2년 후에는 2기를 뽑습니다. 물론 이번이 첫 시도라 향후 수정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민간에서 운영하거나 제주, 세종 등 다른 시도에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많이 생겨났지만 이런 형식으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는 최초일 거예요. 경기도의 전폭적 지지와 후원을 받는다는 점도 남다릅니다. 경기도에서 원대하고 긍정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성공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음악 활동을 독려하고, 더 나아가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롤 모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맡으셨던 적이 있죠. 2006년 하트하트오케스트라 창단 때부터 7년 넘게 했어요. 당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자님이 연주 단원인 저를 추천해 주셨죠. 2002년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해 당시에도 지휘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트하트재단에서 발달장애인으로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려고 하는데 맡아줄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당시 국내 첫 시도였기 때문에 의사, 사회복지사, 장애인 교육자 그리고 음악가인 저에게도 의견을 구했었죠. 처음엔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전문 오케스트라라기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8명으로 시작한 작은 규모였죠. 오디션도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현악기 연주자도 없고 클라리넷만 3~4명이었어요.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리코더를 들고 온 친구도 있었어요. 오케스트라라고 할 수 없는 구성이었죠. 그래서 관악기만으로 이루어진 윈드 오케스트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4년 정도 지난 후 현악기 연주자를 모집해 심포니오케스트라를 꾸리게 되었고요.

당시 장애인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힘든 점이 정말 많았죠.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와는 시작부터 다릅니다. 자리에 앉히는 게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딴짓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한 명이 그런 행동을 하면 다른 친구들도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요. 별의별 상황이 매번 일어나요. 그래서 그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선 겉으로는 악간 무서운 지휘자가 될 수밖에 없죠. 시간이 걸리긴 해도 잘 통솔해서 자리에 앉힌 후 분위기가 잡히면 달라집니다.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집중력도 대단해요. 쉬라고 말할 때까지 잠깐도 쉬지 않고 연습해서 놀라울 때가 많아요.

>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는 것은 음악가로서 큰 영광입니다. 너무 설레요. 마치 인생 2회 차를 맞이한 느낌입니다."

2013년에 그만두고 10여 년 만에 다시 장애인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으신 거네요. 다시 지휘자로 장애인들과 합주를 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올여름 즈음 경기아트센터로부터 자문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백지 상태였어요. 오디션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합격자들과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합주할 때 어떤 돌발 상황이 있으며 이에대응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등 처음부터 끝까지 제 경험에 비춰 세세하게 알려드렸죠. 그 후 며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진짜 경기도에서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만든다면 다시 한번 맡아보면 어떨까

경기도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첫 합주를 맞춰보는 박성호 지휘자.

"비장애인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실력을 갖춘
오케스트라로 성장해 장애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 거라 확신합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자문위원 역할이 끝난 후 악 두 달 뒤에 지휘자 공고가 나서 지원했어요. 화려한 경력의 전문 지휘자들이 많이 지원하셨다고 들었는데, 저의 장애인 오케스트라 경험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나 계획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는데, 제 나이 오십에 인생 2회 차를 맞이한 느낌입니다. 이 모든 게 다 꿈처럼 느껴져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을 뽑는 오디션에도 참가하셨나요?

1차 영상 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했는데, 전 2차 오디션에만 참석했어요. 심사위원 5명이 인터뷰와 라이브 연주를 통해 얼마나 소통이 가능한지, 연주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봤고, 오디션 참가자 부모님들도 인터뷰했어요. 발달장애인분 아니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도 지원한 게 특히 기억에 남았는데, 단원으로 선발되었어요. 또 다른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이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생 등 참가자들의 이력이 매우 다양했어요. 대학은 장애인 전형으로 입학했겠지만, 실력이 안 되면 입학과 졸업을 하기 힘들죠. 그 과정을 거쳤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뒤엔 부모님들의 지원과 본인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경기도 거주 이력이 있는 20세 이상 악기 연주자 83명 중 40명을 뽑았고, 11월 13일에 첫 만남을 갖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어요.

장애인들이 합을 맞춰 연주를 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활과 손가락 움직임 한 번, 호흡 한 번을 위해 몇천 번을 연습해요. 그렇게 연습해서 하는 연주를 보면, 비장애인들보다 소리는 부족할지 몰라도 또 다른 감동이 밀려와요.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은 느끼는 감동의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죠. 예전에 하트하트오케스트라가 미국 LA와 시카고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공연을 관람하는 장애인 단원 어머님들이 매회 오열하시는 걸 봤어요. 실력이 뛰어나거나 연주가 훌륭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자리에서 같은 연주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저게 뭐야' 하는 사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요. 아는 만큼 감동의 깊이가 다른 거죠.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단원들을 통솔할 때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지휘할 때 일반 오케스트라와 차이를 두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이번에도 그럴 생각이고요. 단원들 사이사이에 지도해 주시는 강사들도 배치할 거예요. 창단식 공연을 위한 악보도 청소년을 위해 쉽게 편곡해 놓은 것이 아닌, 경기필하모닉 같은 일반 오케스트라에서 쓰는 원본을 준비하려고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모두 충분히 습득하고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대화나 표현이 미숙하거나 더딜 뿐 음악을 대했을 때 특별히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해요. 또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대부분 시간에 대한 강박이 강해서 정확한 시간과 스케줄이 중요해요. 연습 시간이나 연습곡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비장애인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실력을 바탕으로 탄탄한 내실을 다져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운영 방향입니다.

지휘자로서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나요?

이런 단체의 지휘를 맡는 것이 음악가로서 큰 영광입니다. 너무 설레요. 물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는 좀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겠다 싶어요. 더구나 선발된 단원들은 어느 정도 음악과 연주 경험이 있는 친구가 대부분이라 40명의 단원이 모여 합주했을 때 어떤 소리가 날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11월 13일에 가진 오리엔테이션 및 첫 합주 연습 시간에 만나보니, 기대 이상으로 음악적 실력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음악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교육이 갖춰진 친구들도 많고요. 제가 하트하트오케스트라 지휘를 그만둔 이후 지난 10년간 연주 실력이 이만큼이나 성장한 장애인이 많다는 게 놀라웠어요. 10년 전 본 친구가 계속 음악을 하고 있다면 그만큼 더 연습을 했을 테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죠. 그 중간에 사작했더라도 5년 이상은 음악을 해왔을 테고요.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공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앞서 말한 것처럼 12월 3일 창단식 때 단원들과 준비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세 곡 정도 선보이려고 해요. 오디션 때부터 참가자들의 실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즈음 창단 연주회를 할 계획입니다. 첫 정기 연주회가 되는 셈이죠. 12월 초 이후 석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아 창단식 이전부터 마음이 급하네요. 프로그램도 어떻게 구성할지 벌써부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대중이 더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잘 알려진 곡으로 프로그램을 짜며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생 2회 차라고 하신 만큼 각오와 다짐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장애인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매체에 셀 수 없이 많이 출연했어요. 공중파 방송 3사의 교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일간지에 지휘하는 모습이 크게 실려 거리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을 정도였죠. 장애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처음 시도한다는 점이 이슈가 되어 취재하거나 프로그램을 기획했겠지만, 아무래도 지휘자다 보니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 그런 관심과 유명세에 저도 모르게 빠져 있었어요. 그땐 30대 초중반의 젊은 나이라 더 그랬는지도 몰라요. 이번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도 MBC 휴먼 다큐 프로그램에서 촬영해 12월 말 방송할 예정이지만, 이젠 그런 쏟아지는 관심에 과하지 않게 잘 대응할 수 있어요. 열정만 넘친다고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방송 출연보다 중요한 건 단원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연주 실력을 키워서 흠뻑 한 공연을 해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좀 더 부드럽게, 또 노련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세계 최고의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년 후 놀랍게 성장해 프로와 견줘도 뒤처지지 않는 실력을 인정받는 오케스트라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보가 오래 지속되기 바랍니다.

지켜보는 관객들이 어떤 마음으로 응원해 주기를 바라나요?

이전에 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 무대에 설 때마다 관객들에게 꼭 건넨 말이 있어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라고요. 정말 좋았다면 이 친구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립 박수를 보내달라고도 했죠. 그때마다 관객 모두 일어나서 뜨겁게 박수를 쳐주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뿐 아니라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 이정주 사진 박우진

예술과 낭만

STAGE

Preview 1
2024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레퍼토리 시즌
〈사유하는 계절〉& 2024 송년음악회
연말, 풍성한 무대의 즐거움

Preview 2
경기도무용단 〈세종〉
춤의 드라마로 펼치는 시간 여행

Preview 3
오페라 〈라 보엠〉
예술과 낭만의 대서사시

Review 1
〈2024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
피아노를 의 교향곡

Review 2
경기필하모닉마스터즈 시리즈 IV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역장과 악단의 빛나는 하모니

Review 3
〈CBS 음악FM 최강희의 영화음악
1주년 기념 공개방송〉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응원하는 따뜻한 무대의 시간

2024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레퍼토리 시즌
〈사유하는 계절〉 & 2024 송년 음악회

연말, 풍성한 무대의 즐거움

올 연말, 2024년 마지막을 장식할 각기 다른 매력의 두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
올해 끝자락을 감동의 여운으로 물들이는 시간이 될 것이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계절을 사유하다

우리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보여 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우리 전통음악이자 고유한 창작 음악을 동시대의 다양한 예술 장르와 융합하는 창의적 시도를 통해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이 특별하고 풍성한 무대가 올 연말에도 관객을 찾는다. 12월 21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풍성한 무대가 펼쳐지는 것.

사계절을 모티브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 뮤지컬 배우의 협연, 그리고 무대 위를 화려하게 감싸는 감각적인 미디어 아트와 함께 따뜻한 감성을 느끼며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특별한 송년 음악회다. 축원의 의미를 담은 〈비나리〉 공연을 시작으로 〈한강수타령〉을 주제로 한 〈이화 도화 만발하니〉 국악 관현악과 첼로의 협주로 들려주는 K-드라마 OST, 그리고 〈나부코 아리랑〉과

감성진 예술감독.

이번 공연 지휘를 맡은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조광석 부지휘자.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공연 모습.

1

2

3

4

1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펼치는 이길재 첼리스트.
2 신영숙 뮤지컬 배우.
3 팝 클래식 보컬 그룹 유엔젤보이스.
4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You Raise Me Up〉을 국악 관현악 연주로 선보인다. 여기에 〈十二작곡가〉 우수곡 시리즈와 뮤지컬 OST 〈나는 나만의 것〉과 〈레베카〉, 〈황금별〉 등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 곡이 이어지며 각기 다른 장르의 음악과 결합한 국악 관현악 연주의 다채로운 매력을 전한다. 마지막 앙코르 무대로 크리스마스캐럴도 준비했으니 기대해도 좋다. 음악과 함께 시계절을 모티브로 한 미디어 아트도 무대 분위기를 한층 돋운다. 그야말로 연말의 흥겨움과 감동이 가득한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공연이다. 김성진 예술감독과 함께 조광석 부지휘자의 지휘,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준비한 이번 송년 음악회는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와 뮤지컬 배우 등이 협연해 더욱 기대가 크다. 섬세하면서도 패기 넘치는 젊은 연주자로 활약 중인 첼리스트 이길재, 5중창 팝 클래식 보컬 그룹 유엔젤보이스, 〈레베카〉·〈명성황후〉·〈맘마미아!〉 등 유수의 작품에서 섬세한 연기력과 폭발적 가창력을 선보이는 명실상부 뮤지컬계의 톱 배우 신영숙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미디어 아트는 다양한 전시를 통해 인정받고 있는 문소현 작가가 제작했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마련한 송년 음악회로 지난 1년의 시간을 사유하며 우리 음악의 무한한 매력을 즐기는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글 편집부

• 일시
2024년 12월 21일(토) 오후 4시
• 장소 경기국악원 국악당
• 금액 전석 3만 원
• 문의 031-289-6471~5
• 예매 1544-2344

1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올라 지휘하고 있는 김선욱 예술감독.
2 김선욱 예술감독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특별한 송년 선물

올 연말을 위해 김선욱 예술감독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준비한 공연은 한 해를 충만하게 마무리하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세계적 지휘자, 연주자들과 지속적으로 호흡을 맞춰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베토벤 사이클, 브람스 사이클, 슈만 사이클을 비롯해 앤솔로지 시리즈와 마스터스 시리즈 등을 진행하며 연주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등과 정기적으로 협연하며 오페라 레퍼토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 아시아 오케스트라 위크, 자를란트 뮤직 페스티벌, 베를린 뮤직 페스티벌 등 세계적 음악 축제에 초청받았을 뿐 아니라 오케스트라 선택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마에스트로 리카르도 무티에게 "지휘자의 요구에 만족하게 반응하는 오케스트라"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2024년, 김선욱 예술감독이 취임한 이후 베토벤과 말러, 슈트라우스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호평받고 있다.

공연 1부의 오프닝곡은 프랑스 대표 인상파 작곡가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의 〈여미 거위 모음곡〉. 평화로움과 발랄함, 동화적 요소가 가득한 곡으로 문을 연다. 2부에서는 모리스 라벨의 대표곡으로 구성해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스페인 광시곡 (M.54)〉,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M.19)〉, 〈볼레로(M.81)〉를 차례로 연주하며 2024년의 성대한 막을 내린다. 글 편집부

- 일시 2024년 12월 28일(토) 오후 5시
-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 금액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만원의행복석 만 원
- 문의 031-230-3262
- 예매 1544-2344

경기도무용단〈세종〉

춤의 드라마로 펼치는 시간여행

세종대왕과 그의 가장 큰 업적인 한글 창제 과정을 드라마가 있는 춤으로 완성한 공연 〈세종〉이 무대에 오를 준비를 마쳤다.

세종은 어떤 인물인가. 역사책에 의하면 왕으로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차지만 경기도무용단이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그의 인간적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세종의 손자인 예종의 일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구성한 이 작품은 조선 최고의 휴머니스트 세종과 세종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최만리, 정인지, 박팽년, 그리고 겸암의 행보로 한발 물러선 자리에서 세종을 지지했던 동반자 소헌왕후의 이야기가 하나의 큰 서사로 구조화되어 펼쳐진다.

예종의 시간 여행을 통해 가시화되는 장면은 3막으로 구성된다. 프롤로그에서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세종의 영릉 영상으로 시작되어 에필로그에서는 과거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시대 구성으로 짜임새를 달리함으로써 '전환'과 '변화'의 묘를 살린 전개를 통해 관객의 흥미를 유발한다. 세종대왕의 천장[薦葬]을 주관한 예종의 시대와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성군[聖君]의 도를 다한 세종의 시대, 그리고 인본의 극치로 세종과 그의 사람들이 만든 한글 자모를 활용한 '글자 춤'으로 구성했다. '한글 자모의 춤'은 인체 예술의 조형성과 구성미를 한껏 발휘한다. 더불어 현대를 포함한 작품 구성으로 관객이 관람하는 것 이상의 감성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김용범(세종), 박지유(소헌왕후), 정준용(예종), 김상열(최만리), 박영일(정인지), 이진택(박팽년) 등의 무용가가 세종과 그의 사람들로 분해 함께 펼치는 춤의 대서사는 개성 넘치는 춤꾼들의 역량과 표현의 다채로움을 통해 구현되며 감동적인 춤의 세계로 인도한다. 여기에 경기도무용단 김경숙 예술감독,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김성진 예술감독의 예술적 교감과 융합 의지가 더해져 이 겨울 관객들의 오감을 더욱 풍성하게 자극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글 편집부

- 일시 2024년 12월 6일(금) 오후 7시 30분, 12월 7일(토) 오후 4시
-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 금액 R석 4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만원의행복석 1만 원
- 문의 031-230-3312~3314
- 예매 1544-2344

1 소헌왕후 역의 박지유. 2 세종의 사람 중 한 명인 박팽년 역의 이진택. 3 세종 역할을 맡은 김용범. 4 일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야기를 이끄는 예종은 정준용이 맡았다. 5 정인지 역의 박영일.

오페라 〈라 보엠〉

예술과 낭만의 대서사시

크리스마스 시즌이 돌아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가 있다.
이탈리아 거장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의 걸작 〈라 보엠〉이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하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그 자유와 낭만이 깃든
감동을 느낄 수 있다.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맞이한 2024년 겨울, 푸치니의 명작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오페라 〈라 보엠〉이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서울시오페라단이 제작한 이번 공연은 시대를 초월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으로 완성해 관객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라 보엠〉은 앙리 뮈르제의 소설 〈보헤미안 삶의 정경〉이 원작으로, 푸치니의 곡에 루이지 일리카와 주세페 자코사가 함께 대본을 쓴 4막으로 이루어진 오페라다. 가난하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젊은 보헤미안들의 삶과 사랑을 현실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배경은 1830년대 프랑스 파리의 라탱 지구. 크리스마스이브, 낡고 오래된 아파트 꼭대기 층에 가난한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있다. 시인 로돌포와 그의 친구 마르첼로, 콜리네, 쇼나르.

남은 원고를 정리하기 위해 친구들을 보내고 홀로 남은 자리에서 로돌포는 촛불을 빌리러 온 미미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이 오페라의 유명한 아리아 중 하나인 〈그대의 찬 손〉을 함께 부르며 로돌포와 미미는 곧 연인이 된다. 로돌포의 친구이자 화가인 마르첼로는 옛 연인이던 무제타와 재회하며 두 커플의 만남이 그려지지만, 결국 모두 이별을 맞이한다. 시간이 흘러 폐병이 점점 악화된 미미는 다시 로돌포를 찾아오고, 로돌포와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숨을 거둔다.

생생하게 묘사되는 인물들의 아름답고도 덧없는 드라마틱한 사랑 이야기는 유려하고 매력적인 선율로 완성된다. 전편을 수놓는 감미롭고 서정적인 아리아와 풍부한 관현악 연주가 심금을 울리는 감동을 선사한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소프라노 황수미와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자인 소프라노 서선영이 미미 역으로 출연해 기대를 모으고, 로돌포 역은 테너 문세훈과 김정훈이 맡았다. 박혜진 예술감독과 김덕기 지휘자,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만나 음악적 완성도를 높인다.

푸치니의 주옥같은 선율로 빚어내는 사랑과 열정, 슬픔과 고뇌 그리고 위트로 가득한 보헤미안들의 삶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 감동을 줄 것이다. 오페라 〈라 보엠〉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낭만을 미리 느껴보자.

글 편집부

- 일시 2024년 11월 30일(토)~12월 1일(일) 오후 3시
-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 금액 R석 12만 원, S석 10만 원, A석 8만 원, B석 5만 원, 만원의행복석 1만 원
- 문의 031-230-3264
- 예매 1544-2344

〈2024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

'피아노들'의 교향곡

피아노의 깊고 넓은, 아름다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해 준
〈2024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 대의 피아노가 선사하는
교향악적 합주가 올려 퍼진 오프닝 콘서트는 한 가지 악기만으로
압도적이고 강렬한 감동을 안겨준 무대였다.

무대 위에 피아노들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피아노 듀오 연주가 아닌 이상 무대 위 피아노는 늘 한 대뿐이다. '피아노들'이라는 복수형 표현이 실짝 생경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열다섯 대의 피아노라니. 그 무대만 봐도 〈2024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의 정체성이 명확히 전달되는 듯했다.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지금 음악가들이 피아노로 어떤 음악적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고, 피아노 음악의 깊고도 넓은 아름다움을 즐기는 페스티벌. 그런 페스티벌의 문을 여는 곡은 아주 선언적이게도, 피아노 열다섯 대가 함께 교향곡 두 곡을 연주하는 공연이었다.

첫 곡은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G단조〉로, 그야말로 널리 알려진 교향곡이다. 꼭 콘서트홀에서 들은 경험이 없더라도 여러 미디어에서 다양하게 소개되어 온 만큼 많은 관객이 그 곡의 도입부를 듣는 순간 친숙함과 낯섦을 동시에 느꼈을 것이다. 현악 파트의 가벼운 연주로 시작되는 도입부는 이날 공연에 서만큼은 무대 한편에 있는 피아노의 타건으로 시작됐다. 안개가 짙게 깔리는 듯한, 여리고도 어두운 톤을 구현하던 그 첫 부분에서 나는 새삼 이들이 예컨대 '현악기군'이나 '관악기군'처럼 한데 묶여 합주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피아노군'의 연주는 또렷하고, 압도적인 힘을 품고 있었다. 아주 짧은 도입부를 연주했을 뿐이지만 이들이 들려줄 음향은 훨씬 폭넓을 것 같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었다.

교향곡이 연주되는 와중에 그 안에서 '피아노군'이라는 한 그룹이 다시 제1피아노와 제2피아노로, 그리고 제3피아노로 파트를 무한히 나눠가는 과정을 들을 수 있었다. 교향곡이 늘 그러하듯이, 어떤 부분에서는 한 피아니스트가 그야말로 멜로디를 연주하는 솔로 파트로 등장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모두가 합심해 한 호흡을 만들어냈다. 다만 통상의 오케스트라 무대와 다른 배치였고, 편곡 과정에서 예컨대 열 번째 피아노가 '목관' 역할을 한다는 식으로 오케스트라와 피아노를 일대일로 매칭하진 않았다. 악기의 조건이 일대일로 매칭되지 않으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 〈교향곡 40번 G단조〉의 그 익숙한 선율과 음형, 화성이 튀어나올지 기대하는 것도 이날 연주의 묘미 중 하나였다. 다 함께 같은 모티브로 합주하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선율이 튀어나오기도, 선율의 단편들이 피아노 사이를 타고 떠다니면서 마침내 하나의 선율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등 본래 관현악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다양

열다섯 대의 피아노와 서른명의 피아니스트가 한 무대에 올라 공연한 피아노 오케스트라.

성을 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즐길 수 있었다. 두 번째 곡은 베토벤 〈교향곡 7번〉이었다. '미들의 향연'이라는 부제가 달린, 여러 악기가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풍요로운 음색이 매력적인 곡이다. 단순 명료한 구조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악기들이 빠른 호흡으로 바뀌며 역동적인 흐름을 만들어갔고, 그런 곡의 특성은 도입부에서 특히 잘 드러났다. 오케스트라 전체가 화음을 하나씩 연주할 때마다 악기가 하나씩 바뀌면서 작은 솔로를 진행하는 구조. 그 곡이 본래 지닌 흐름과 마찬가지로, 열다섯 대의 피아노도 같은 구성을 피아노로 구현하려 했다. 언제는 클라리넷처럼, 언제는 오보에처럼, 언제는 트롬본처럼.

피아노 오케스트라가 빚어낸 아름다운 울림

피아노가 내는 소리가 반드시 그 오케스트

'피아노'라는 한 가지 악기만으로 이루어지는 합주가 압도적이고 짜릿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며 웅장하고 강렬한 무대를 선사했다.

라의 소리와 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피아니스트들이 훈련해 온 것 중 하나는 아마도 피아노 한 대로 오케스트라를 구현할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 속 여러 악기의 음색과 뉘앙스를 잘 표현하는 일이다.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악기지만 어떤 피아노 연주를 들을 때는 그것이 꼭 플루트가 내는 새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고, 저음에서 낮게 울리는 바순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정교한 기계장치이기도 한 피아노 소리가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다. 피아니스트들은 음악에서 늘 여러 성부, 다양한 목소리를 복합적으로 다뤄왔고, 교향악에서 만들어지는 총천연색 음색을 지향하고 표현하는 일은 그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들 모두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악기였지만, 같고도 다른 피아노 음색으로 피아니스트들이 만드는 미묘한 음영 변화를 캐치하는 재미가 있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베토벤 〈교향곡 7번〉의 어떤 클라이맥스였다. 오케스트라 전체가 다 함께 연주하며 교향악적 사운드를 내뿜어야 하는 부분을 열다섯 대의 피아노로 연주할 때는 무대 위의 이들이 '피아노 오케스트라'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1

2

극장 전체가 떠나갈 것처럼 압도적이고 짜릿한 사운드였고, 한 가지 악기만으로 만들어내는 합주가 이토록 웅장하고 강렬하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놀라웠다. 같은 손끝 감각으로 만들어내는 교향악적 합주. 김대진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30명의 피아니스트가 한자리에 모여 교향악을 연주하는 광경은 '피아노 페스티벌' 같은 특별한 행사가 아니고는 결코 볼 수 없는 진풍경이었다.

〈2024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의 첫 무대였던 이날 피아노 오케스트라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앙코르 무대였다. 첫 앙코르곡은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곡집〉의 C장조 프렐류드였다. 압도적인 사운드를 한껏 들려준 이후, 서로 다른 피아니스트들이 이 한 곡을 교대로 연주하며 완성한 음악은 피아니스트들의 손끝을 타고 이어지는 아름다운 연결점을 만드는 듯했다. 이어진 진짜 마지막 앙코르곡은 〈라데츠키 행진곡〉이었다. 화려한 페스티벌의 서막을 장식하는 멋진 파날레이기도 했지만, 이는 피아니스트들과 김대진 예술감독이 한 명씩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했다. 피아니스트 사이에 오가는 어떤 우정, 그리고 그들의 구심점이 되어준 김대진 예술감독과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공연이었다. 이 쟁쟁한 피아니스트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이들이 오케스트라가 되어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마도 그들 사이에 오랜 시간 쌓인 깊은 연대감이 아닐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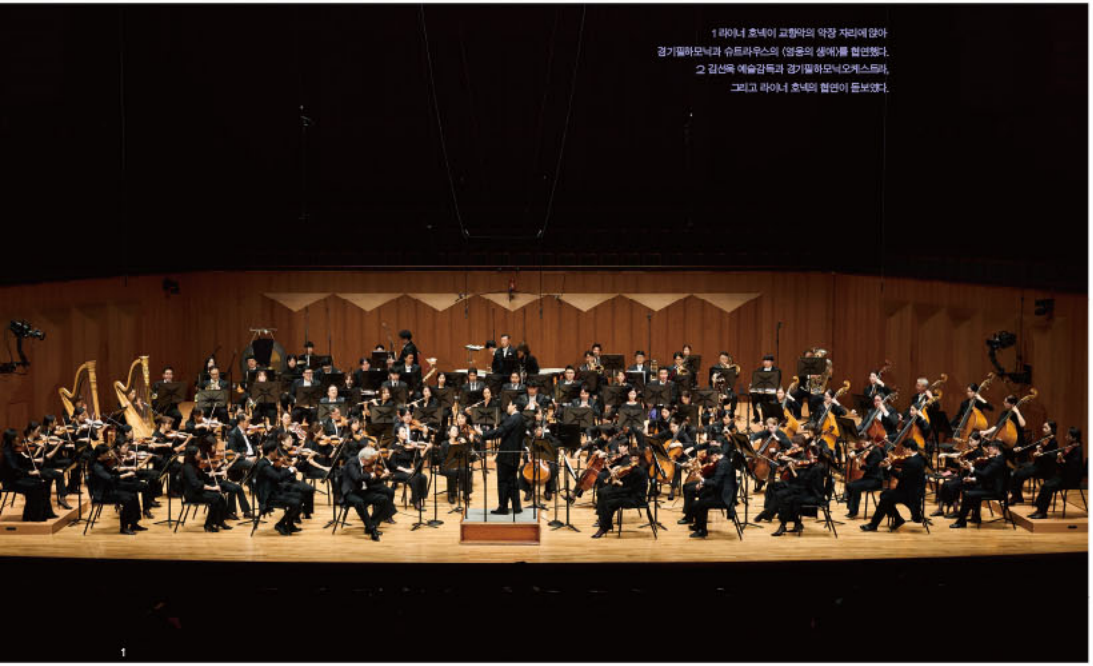
1, 2 피아노 오케스트라의 지휘와 연주를 동시에 보여준 김대진 예술감독과 연주자들. 3 '쟁쟁한' 피아니스트들의 손끝을 타고 아름다운 연결점을 만들어냈다.

글 신예슬_ 음악비평가. 헤테로포니 동인. 음악학을 공부했고 동시대 음악과 소리 사이에 숨어 있는 여러 이야기를 찾는다.

경기필하모닉마스터즈 시리즈 IV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악장과 악단의 빛나는 하모니

훌륭한 악장과 함께할 때 악단의 연주는 한층 빛을 발한다. 빈 필하모닉 악장 라이너 호넥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이번 협연은 그야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하모니를 이룬 무대였다.



1 라이너 호넥이 교향악의 악장 자리에 앉아 경기필하모닉과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를 협연했다.
2 김선욱 예술감독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그리고 라이너 호넥의 협연이 돋보였다.

오케스트라 악장은 사실 솔리스트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연주력을 자랑한다. 연주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앙상블을 이끄는 탁월한 실력도 겸비하고 있어 악장 자리에 앉게 되지만, 악단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연주가 앙상블에 적응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저명한 악단의 악장이 연주하는 리사이틀에 갔을 때 솔리스트로서의 능력에 의문이 생길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하고 교향악의 악장 역할까지 모두 소화해 낸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라이너 호넥은 악장과 솔리스트, 두 모습 모두 물음표 하나 없이 모두를 감동시키는 음악을 들려주었다.

라이너 호넥이 경기필하모닉과 함께 먼저 들려준 음악은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61〉이다. 바이올린계의 3대 또는 5대 협주곡을 꼽을 때 빠지지 않는 곡으로, 감상하다 보면 왜 난곡이라고 하는지 의아할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음악이 흐르고, 기교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주자 관점에서 보면 다르다. 스케일, 아르페지오, 옥타브 등 기본 테크닉만으로 이루어져 연주자가 숨을 데가 없을뿐더러 최상의 소리(음색)로 구현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라이너 호넥의 연주를 들으며 먼저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편안함은 결국 테크닉에서 오는데 왼손과 오른손, 즉 핑거링과 보잉에 흔들림이 없었다. 보통 연주자는 나이를 먹을수록 테크닉을 구현하는 데 무리가 오기 마련인데, 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특히 현에 착 달라붙은 활이 만들어내는 음색은 베토벤 그 자체였다. 화려하지 않아도 충분히 고급스러운 기품이 넘쳤다. 해석 역시 과한 루바토나 극단적으로 다이내믹한 표현 없이 자연스러운 흐름과 음색으로 완벽하게 연주했다. 라이너 호넥은 이 곡의 피아노협주곡 버전 연주에서 빈 필하모닉의 선배 악장인 볼프강 슈나이더한이 편곡한 카덴치를 선택해 작곡가의 의도와 해석의 근원을 담아냈다. 빈 필하모닉과 다른 악단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독특한 음색이 빠지지 않는데, 라이너 호넥 역시 그 음색 하나로 음악을 완성했다.

2부에 진행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 연주에서 라이너 호넥은 악장 자리에 앉았다. 1부에서 경기필하모닉과 협연한 그가 과연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도 완벽히 연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야말로 기우였다.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는 악장 라이너 호넥이 그의 악단 빈 필하모닉과 함께 음반도 남겼을 정도로 대표적인 작품이다. 빈 필하모닉을 '그의 악단'이라 칭한 이유는 음악감독 또는 상임지휘자를 두지 않는 빈 필하모닉의 특수성 때문이다. 그래서 빈 필하모닉은 무엇보다 악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인지 라이너 호넥이 악장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만으로도 경기필하모닉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경기필하모닉에 자신만의 보잉과 핑거링을 미리 전달해 완벽한 〈영웅의 생애〉를 만들고자 했다. 〈영웅의 생애〉 악보를 보면 새카만 음표가 가득 들어차 있는데, 심지어 모든 악기가 다른 파트에 묻어가는 부분 없이 각각의 역할이 분명하다. 파트뿐 아니라 제1바이올린만 하더라도 1플루트 2플루트, 그리고 각 플루트의 좌우 연주자까지 각각 악보가 다르기 때문에 단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집중해 최상의 기량으로 연주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슈트라우스가 의도한 오묘한 화성의 매력이 드러나는 음악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 안에 있는 이야기가 살아나 〈영웅의 생애〉라는 웅장한 작품이 완성된다. 무엇보다

라이너 호넥의 호연으로 경기필하모닉이 어떤 악장과 함께해야 할지 명확해졌다.

이날 경기필하모닉은 고도의 집중력으로 라이너 호넥의 생애를 함께 그려나갔다. 쉼 없이 연주되지만 섹션이 나뉘어 각각 테마가 있는 이 음악의 스토리가 그대로 전해지는 걸 느끼며, 아내 작품 속 영웅은 바로 라이너 호넥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사실 악장 한 명이 달라졌다고 악단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그동안 김선욱 예술감독과 함께 첫 공연에서 선보인 베토벤 〈교향곡 3번〉부터 말러 〈교향곡 1번〉, 그리고 베토벤 〈교향곡 9번〉을 통해 탄탄히 쌓아 올린 시간이 있기에 라이너 호넥과의 협업이 빛을 발한 것이다. 이번 무대에서 잘 만들어진 음악을 이끄는 김선욱 예술감독의 행복함이 객석까지 전해졌다.

라이너 호넥의 호연으로 경기필하모닉이 앞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뛰어난 악장을 하루빨리 찾는 것이다. 이날 무대는 경기필하모닉이 어떤 연주자와 함께해야 할지 알려주는, 그리고 악단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었던, 오랜만에 행복을 느낀 공연이었다.

글 정소연_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음악이론을 전공하고, 현악기 전문 잡지(스트라드) 수석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 외 클래식 전문 필자로 다양한 매체에 기고하고 있다.

〈CBS 음악FM 최강희의
영화음악 1주년 기념 공개방송〉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응원하는 따뜻한 무대의 시간

입동인 11월 7일 저녁,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배우 최강희가 진행하는
〈CBS 음악FM 최강희의 영화음악 1주년 기념 공개방송〉이 열렸다.
영화음악 공연과 더불어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응원하는 뜻깊은 무대였다.

'입동'을 맞아 깜짝 추위가 찾아왔지만 알찌감치 공연장 무대인 대극장을 찾아 자리를 가득 채운 청취자들의 열기는 추위를 잊고도 남을 만큼 뜨거웠다. 특히 이번 공개방송에서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되었다. 드디어 공개방송이 시작되고,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그널인 영화 〈일 포스티노〉 OST 〈Bicycle〉이 흐르는 가운데 진행을 맡은 배우 최강희는 안면기형을 안고 태어난 소년 '어기'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영화 〈원더〉로청취자들의 마음을 따듯하게 맞았다. 최강희는 "알고 보면 우린 모두 평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평생에 한 번쯤 박수받을 자격이 있답니다"라는 어기의 대사를 인용하며 청취자와 함께 성장한 〈최강희의 영화음악〉 1주년을 자축했다. 따뜻한 박수는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으려고 하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

90분 남짓한 공연은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각양각색 무대로 채워졌다. 서정적인 기타 선율로 친숙한 곡을 엮어내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안형수는 영화 〈디어 헌터〉로 사랑받은 〈Cavatina〉를 연주해 첫 무대부터 진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어지는 영화 〈미션〉 OST 〈Gabriel's Oboe〉, 알 파치노의 명연기와 탱고로 기억되는 영화 〈여인의 향기〉 OST 〈Por Una Cavеza〉등 안형수 트리오의 연주는 곧 영화음악의 진수였다. 이 밖에도 가수 서영은이 가을과 잘 어울리는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의 〈사랑하는 날에〉와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의 수록곡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를 불러 분위기를 더했다. 또 '블록버스터급 성량의 소유자' 정동하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대표곡인 퀸의 〈Bohemian Rhapsody〉와 손예진·조승우가 주연한 영화 〈클래식〉의 〈사랑하면 할 수록〉 등을 열창해 누구보다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최강희는 관객을 위해 깜짝 선물도 준비했다. 영화 〈페페한 로맨스〉에서 직접 부른 〈캥거루〉를 라이브로 들려준 것. 수줍어하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최강희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관객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평소 무대에서 유난히 많이 떤다는 최강희 배우는 "1년 동안 친해진 청취자들과 함께하니 덜 떨렸다"라며 공개방송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가장 뜻깊은 연주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홍보대사이자 '왼손 피아니스트' 이훈의 무대였다. 뇌졸중으로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장애를 안게 됐지만 단 한 번도 피아니스트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이훈. "한 손으로 몇 배는 더 큰 감동을 전하고 있다"라는 최강희의 소개처럼 이훈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알렉산드르 스크랴빈의 〈왼손을 위한 녹턴 Op. 9 Nocturne for the left hand Op. 9〉은 객석을 감동으로 물들이기에 충분했다. 공연 후 많은 청취자가 "한 손으로 이토록 아름다운 연주를 선보이다니", "보면서도 한 손 연주라고 믿어지지 않았다", "왼손 피아니스트 이훈을 보며 새삼 음악의 힘을 느꼈다"라며 찬사를 보냈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홍보대사인 아나운서 김경란도 자리해 '내가 만들고

1 〈디어 헌터〉와 〈미션〉, 〈여인의 향기〉의 영화음악 명곡 연주를 들려준 안형수 트리오. 2 가수 정동하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와 〈클래식〉의 대표곡을 불러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3 가을에 어울리는 감미로운 음색으로 분위기를 더한 가수 서영은. 4 진행을 맡은 최강희, 영화 〈페페한 로맨스〉에서 직접 부른 〈캥거루〉를 라이브로 선보였다.

함께 누리는 꿈의 심포니라는 성장형 오케스트라의 취지를 전하며 서포터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공연에 함께한 아티스트와 관객의 호응이 이어졌다. 특히 가수 서영은은 "재능 기부로 꼭 한번 함께하고 싶다"며 큰 관심을 보였고, 공연이 끝난 후 많은 청취자가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서포터즈 부스를 찾아 후원에 동참하는 훈훈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번 공연은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청취자들에게도 뜻깊은 선물이 되었다. 가깝게는 걸어서 7분 거리에 사는 수원 시민부터 멀리 제주도에서 온 청취자, 여름휴가를 하루 아꼈다 이번 공연을 위해 썼다는 청취자, 또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더 기뻤다는 사랑꾼 남편 청취자까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강희는 그동안 50회에 가까운 헌혈, 골수 기증 등으로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아프리카 모잠비크를 방문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전하기도 했다. 또 특유의 친밀한 진행 솜씨로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맡은 지 1년 만에 동시간대 라디오 1, 2위를 다툴 만큼 인기 프로그램으로 성장시키기도 했다. 이런 최강희에게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과 함께한 〈CBS 음악FM 최강희의 영화음악 1주년 기념 공개방송〉은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영화음악이 전하는 위로,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이 매일 함께해 주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역시 서포터즈의 응원을 통해 크게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린 모두 특별한 사람이고, 박수받기 충분한 존재니까요." 포근한 미소와 함께 당부의 말을 전하는 배우 최강희에게도 빛나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사진 박우진

글 최지영_ CBS 〈최강희의 영화음악〉 작가. 매일 영화 보고, 글 쓰고, 라디오로 일상을 수집한다. 전쟁 속에서 만난 뜻밖의 평온을 담은 〈지중해〉와 재즈 감성 가득한 〈라라랜드〉를 인생 영화로 꼽으면서도 〈현실 가이즈〉의 B급 감성을 두고두고 즐거워하는, 잡식성 취향을 지녔다.

1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청취자들이 이번 공연에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2 왼손 피아니스트 이훈의 무대.
3 아나운서 김경란과 진행을 맡은 최강희.

예술과 만남

INSIGHT

Art and the City
All I Want for Spectacular Christmas!
뉴욕에서 크리스마스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볼거리와 문화 이야기

Attraction
우아한 시간의 낙원
럭셔리 호텔로 거듭난 고대 건축물

Artist Talk
무대를 향해 마주보다
'연극 교실'을 통해 만난 경기도극단 연극배우 이슬비와 수강생 임윤주

On & Off
읽고 듣고 사유하다
문학 신간 세 권과 책 읽어주는 유튜브채널

Art Scene
Light and Shadow
국내외에 열풍을 불고 온 한국문학과 K-팝의 빛과 그림자

All I Want for Spectacular Christmas!

매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왠지 모르게
영화에서 본 뉴욕의 크리스마스가 떠오른다.
화려한 불빛과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빛나는 거리
어딘가에서 우연히 낭만적인 순간을
마주할 것만 같은 느낌. 그런데 뉴욕의 겨울을
제대로 즐길 이 도시의 매력은 따로 있다.
이 시즌에만 볼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과
이벤트가 선물처럼 기다리고 있기 때문!
뉴욕에서 스물다섯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뉴요커가 이 도시에서 경험할 특별한 볼거리와
문화가 가득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전해 왔다.

뉴욕 도심의 크리스마스 풍경.

뉴욕이라는 도시를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는 바로 '뉴욕'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라고 하기엔 미국의 다른 도시와 매우 다른 데다 금융, 쇼핑, 문화, 예술, 미디어, 음식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라고 주저리주저리 늘어놔도 뉴욕을 정확히 설명했다고 하기엔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뉴욕을 뉴욕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다양한 인종과 그들 사이에 생겨난 문화다. 날실과 씨실을 엮어 짜내는 직물처럼 온갖 문화와 사람이 함께 부조화로우면서도 조화로운 뉴욕의 색을 만들어낸다. 뉴욕의 다양성은 인종과 문화에 그치지 않는다. 하루 만에 내 연봉의 몇 배를 벌어들이는 월급쟁이가 있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음식을 구걸하는 노숙자도 있고,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존재한다. 이렇게 수많은 차이와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나처럼 방약한 사람의 기를 순식간에 빨아내 버리기에 충분할 만큼 힘이 세다. 나도 한때 '기 센 여자' 소리 좀 들었건만, 뉴욕에서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 어어 매트리스에서 바람 빠지듯 에너지가 다 없어져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뉴욕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갖는 순간은 한 해 두 번,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다. 이때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다른 주로 떠나는 사람이 많아 뉴욕은 마침내 한가로워진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도시는 가장 화려한 불빛으로 장식되는데, 정작 도시의 주인인 뉴요커들은 뉴욕을 비우는 것이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관광객이다.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뉴욕은 1년 중 가장 멋진 치장을 하고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크리스마스다운 볼거리를 준비한다.

라디오 시티의 〈크리스마스 스펙태큘러〉

뉴욕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연은 바로 라디오 시티의 〈크리스마스 스펙태큘러Christmas Spectacular〉일 것이다. 뉴욕에서 가장 역사적인 공연장인 라디오 시티에서 가장 오래도록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요즘 공연에서 보기 힘든 블링블링한 의상과 지루할 틈 없는 구성, 볼거리로 가득 찬 무대, 내로라하는 걸 그룹도 울고 갈 '로케츠'의 칼군무 때문이다. 공연 시간 90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고, 공연을 마친 후에

1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크리스마스 스펙태큘러〉 공연을 선보이는 라디오 시티.

1 뉴욕시티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공연에 참여한 아메리칸 발레 스쿨School of American Ballet 학생들. 2 슬리스트 애슐리 라레이시Ashley Laracey와 뉴욕시티 발레단의 아메리칸 발레 스쿨 학생들이 함께한 조지 발란친의 〈호두까기 인형〉 공연.

© Erin Baiano

는 이미 내 마음속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기분을 느끼게 된다. 1925년에 창단된 로케츠는 참전 군인들을 위한 위문 공연, 대통령 취임식 등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무용단이 되었다. 그들이 매년 라디오 시티에서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스펙태큘러〉는 1933년에 첫 공연을 시작한 이래 90여 년을 지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나무 병정들의 퍼레이드Parade of the Wooden Soldiers〉와 〈살아 있는 성탄절Living Nativity〉은 첫 공연부터 지금껏 빠지지 않고 선보이고 있다.

뉴욕시티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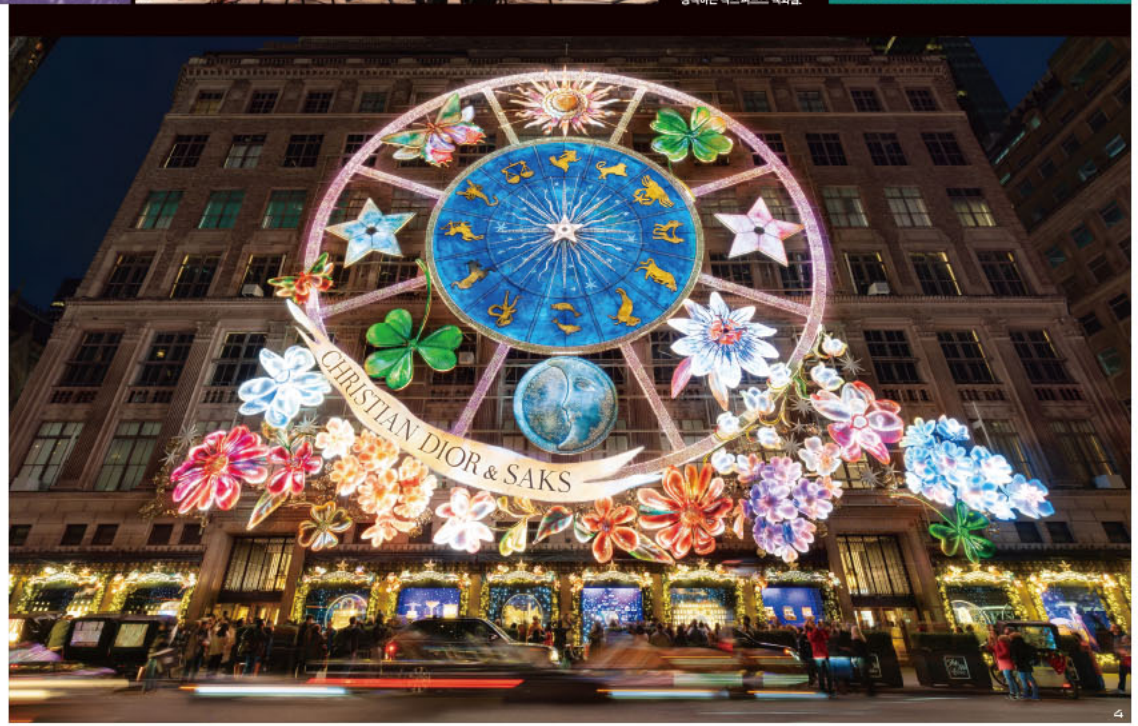
뉴욕시티 발레단은 가장 영향력 있는 20세기 발레 안무가이자 무용가 중 한 명인 러시아 출신의 조지 발란친이 만든 〈호두까기 인형George Balanchine's The Nutcracker〉을 공연한다. 1954년 초연 이후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온

1 뉴욕 필하모닉의 본거지로 다채로운 크리스마스 공연을 볼 수 있는 링컨센터의 데이비드 게펜 홀. 2 뉴욕 필하모닉의 크리스마스 공연 모습. 3 보태니컬 가든에서 펼쳐지는 〈홀리데이 기차 쇼〉. 4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 화려한 윈도 디스플레이로 장식하는 삭스 피프스 백화점.

이 공연은 클래식 발레의 상징이자 뉴욕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연 인기가 높다. 뉴욕시티 발레단은 1948년 조지 발란친과 링컨 커스틴이 창단한 세계 3대 발레단 중 하나로, 신고전주의 발레를 선보이는 가장 미국적인 발레단이다. 뉴욕 공연예술의 심장인 링컨센터에서 열리는 이 공연은 온 가족이 함께 봐도 좋지만, 아직은 어색한 연인과 둘이 가도 재미있게 볼 수 있다. 무대에서 3m짜리 크리스마스트리가 12m로 자라나는 모습, 폭이 3m 되는 마더 진저의 드레스 같은 화려한 비주얼, 곳곳에서 웃음이 터지게 만드는 코믹한 순간이 관객을 사로잡는다. 특히 마지막에 펼쳐지는 '설원의 왕국'의 무대 디자인과 의상은 그 화려함이 공연의 마지막을 환상적인 기억으로 마무리하게 한다.

뉴욕 필하모닉의 홀리데이 콘서트

'뉴욕의 음악적 영혼'이라고도 불리는 뉴욕 필하모닉은 1842년에 창단해 약 180년 역사를 품은 세계적 오케스트라다. 뉴욕 필하모닉의 그 규모와 명성으로 세계 3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꼽히며, 때때로 대중적인 곡을 선보이며 관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뉴욕 필하모닉의 크리스마스 공연은 감동적인 음악과 함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는데, 올해 홀리데이 콘서트는 〈헨델의 메시아〉, 다양한 크리스마스 뮤직을 연주하는 〈사운드 오브 시즌〉, 〈엘프〉 영화를 보면서 뉴욕 필하모닉이 연주하는 영화음악을 듣는 〈엘프 인 콘서트〉가 링컨센터에서 관객을 기다린다.



뉴욕 보태니컬 가든의 〈홀리데이 기차 쇼〉

10년 전 즈음 남편이 회사에서 표를 줬다며 뉴욕 보태니컬 가든으로 〈홀리데이 기차 쇼Holiday Train Show〉를 보러 가자고 했을 때 〈토마스와 친구들〉 속 주인공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귀엽고 앙증맞은 재미를 상상했다. 그러나 눈이 하얗게 덮인 공원을 걸어 도착한 〈홀리데이 기차 쇼〉는 정신줄을 놓고 기차를 따라 뛰어가는 아이들만큼 어른들도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드는,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홀리데이 기차 쇼〉는 자연과 예술 그리고 기차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크리스마스 경험을 선사하며 매년 수많은 관람객을 매료시킨다. 식물로 만든 크라이슬러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브루클린 브리지 등 유명 건축물로 이루어진 작은 세계를 클래식 기차들이 지나다니는 광경이 펼쳐진다. 관람객들은 레일을 따라 걸으며 마법 같은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 그 속에서 자연과 기계, 전통과 현대 그리고 예술이 어떻게 완벽하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삭스 피프스 백화점의
홀리데이 윈도 디스플레이와 레이저 쇼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뉴욕 백화점들은 화려한 윈도 디스플레이를 선보인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화려한 곳이 삭스 피프스 백화점이다. 이 백화점의 크리스마스 윈도 디스플레이는 '쇼윈도 속 예술'이라고 불릴 만하다. 매년 선정되는 테마를 따라 각 윈도가 독립적인 하나의 미술 작품처럼 구성된다. 2023년 '마법의 여행'을 주제로 꾸민 윈도 디스플레이는 하나하나의 윈도가 각각 마법 같은 환상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공간이 되었다. 이 디스플레이를 완성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인 예술가와 디자이너가 몇 개월에 걸쳐 작업을 하는데, 움직이는 인형과 배경이 생동감과 재미를 더한다. 가장 상업적인 도시 뉴욕에서도 가장 상업적인 장소인 백화점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술 작품이라 더 흥미롭다.

글조태실_ 뉴욕에 살고 있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비주얼 아트스쿨School of Visual Arts에서 그래픽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 MTV와 니켈로디온Nickelodeon 등 여러 케이블 채널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다. 현재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Warner Brothers Discovery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우아한 시간의 낙원

현대인의 안식처로 탈바꿈한 고대 건축물.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이 깃든 공간에
현대적 미감과 라이프스타일을 녹여낸 호텔을 소개한다.

BELMOND VILLA SAN MICHELE

벨몬드 빌라 산미켈레

울창한 사이프러스나무와 흐드러지게 핀 장미, 300년 넘은 등나무 넝쿨. 그 사이에 고요히 자리한 '벨몬드 빌라 산미켈레'의 모습은 평화롭기 그지없다. 15세기 프란체스코회 수도원을 개조한 이 호텔은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묵은 이야기가 많다. 호텔이 자리한 몬테체체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비행 실험을 했던 장소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건축물의 정면은 예술사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다. 고대 로마의 유산을 간직한 이 건축물은 나폴레옹 시대에 수도원이 해체되면서 한때 개인 소유였다가 1950년대에 호텔로 탈바꿈했다. 이후 1982년, 벨몬드(오리엔트 익스프레스 호텔로 시작한 고급 호스피텔리티 브랜드)가 호텔을 인수하면서 지금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총 45개 객실과 25개 스위트룸을 두고 있으며, 객실 안팎에서는 피렌체의 정수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테라코타 타일로 마감한 바닥, 카라라 대리석으로 꾸민 욕실, 아치형 천장과 프레스코화 장식이 르네상스 시대의 고풍스러운 멋을 드러낸다. 또 호텔 내 특별한 공간인 세나콜로 룸에서는 17세기 예술가 니코데모 페루치Niccodemo Ferrucci가 그린 '최후의 만찬' 벽화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레몬나무와 장미 향 가득한 정원에서 내려다보는 키안티 언덕과 피렌체 시내 전망은 가히 압권이다.

Via Doccia, 4, 50014 Fiesole FI, Italy

www.belmond.com

1 15세기 수도원을 개조한 벨몬드 빌라 산미켈레. 그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꾸며진 슈페리어 주니어 스위트룸.

2

로스카 런던

1901년에 지은 침례교회를 이토록 매혹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인물은 프랑스 디자이너 자크 가르시아Jacques Garcia다. 테라코타와 포틀랜드 석재로 마감한 바로크양식 건물의 문을 열면 휘황찬란한 보석함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 궁극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이곳은 '데카당스(퇴폐미)'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가르시아는 데카당스 문학의 정수를 보여준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과 삶의 태도를 이곳에 이식했다. 빅토리아 시대 딱딱한 규범을 거부하고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과감하게 표현한 그의 극적이고 퇴폐적인 분위기를 녹여낸 것. 객실과 공용 공간은 에메랄드 그린, 루비 레드, 사파이어 블루 등 보석 색상의 팔레트를 사용해 우아한 럭셔리를 표현했다. 또 동물과 자연을 사랑하는 가르시아의 취향을 담아 새와 나비 모티브를 곳곳에 배치해 판타지 분위기를 더했다. 공작 무늬를 새긴 문, 나비 날개로 장식한 수도꼭지, 벌새 램프, 계단 중앙에 매달린 드라마틱한 새장 상들리에처럼 숨은그림찾기를 하듯 곳곳에서 새와 나비를 발견하는 것도 소소한 재미다. 호텔 전신인 교회의 흔적도 듬듬이 발견할 수 있는데, 오크 패널링과 정교한 석고 장식, 스테인드글라스 창문, 영국 문화재 2등급에 등재된 벽난로 등을 복원해 건축적 유산을 그대로 살렸다. 호텔에서 반드시 둘러봐야 할 곳을 하나 꼽으라면 레스토랑 '더 바프티스트 그릴'이다. 과거 예배당으로 사용됐던 공간으로 팔각 형태와 돔 천장,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에서 과거의 시간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1아치형 파사드가 돋보이는 바로크양식 건물. 2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에서 영감받아 궁극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객실. 3, 4, 5, 6 호텔 곳곳에 사용된 새와 나비 모티브. 공작 무늬를 새긴 벽, 벌새 램프, 계단 중앙의 새장 상들리에가 판타지한 분위기를 더한다.

2-6 Southampton Row, London WC1B 4AA, UK

www.loscarlondon.com

아르고스 인 카파도키아

카파도키아는 많은 여행자의 버킷 리스트다. 도시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지역은 '요정의 굴뚝'이라고 불리는 기암괴석, 벌집 모양의 언덕, 형형색색의 열기구가 장관을 이루고 있어 여행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카파도키아의 기묘한 지형은 응회암이 풍화와 침식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는 건축 형태에도 영향을 주었다. 과거 사람들은 부드러운 석회암층을 파고 깎아 주거와 종교적 공간으로 활용했다. 카파도키아의 작은 마을 우치사르에 자리 잡은 '아르고스 인 카파도키아'도 다르지 않다. 2000년 된 고대 수도원과 주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호텔로, 수십 개의 동굴과 터널로 이루어져 있다. 객실은 총 51개가 있는데 같은 형태의 객실은 단 하나도 없다. 살내는 소박하면서도 고급스럽다. 튀르키예 전통 카펫과 수공예품이 이국적인 멋을 더하고, 은은한 조명과 목재 가구 그리고 벽난로가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일부 객실에는 개인 저쿠지와 튀르키예식 목욕탕, 살내 수영장, 발코니를 갖추고 있어 프라이빗한 휴식을 보내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또 와인을 7만 병까지 보관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 와인 저장고도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중 하나다. 호텔 레스토랑과 라운지의 창 너머로는 시시각각 비현실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열기구가 둥둥 떠다니는 하늘, 비둘기 계곡, 요정의 굴뚝과 신비로운 지형을 조망할 수 있으니 발길 닿는 곳마다 마법이 일어나는 기분일 테다.

Tekelli, Kayabaş Sk. No: 23, 50240 Uçhisar/Nevşehir Merkez/Nevşehir, Türkiye www.argosincappadocia.com

글 이도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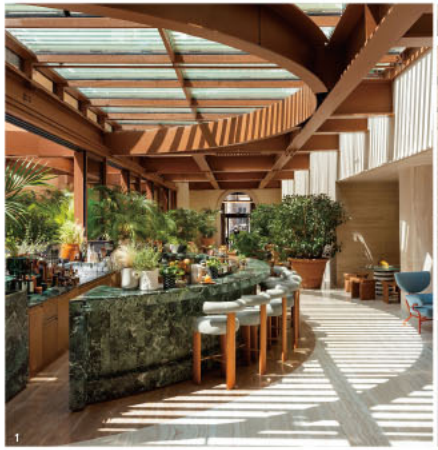
1 2000년 된 고대 수도원과 주거 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호텔 아르고스 인 카파도키아. 2 카파도키아의 신비로운 절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라운지 공간. 3 튀르키예 전통 카펫과 수공예품으로 꾸며진 동굴 형태의 객실.

식스 센스 로마

로마 중심부에 자리한 고요한 안식처다. 15세기 추기경의 저택이었던 팔라초 살비아티 체시 멜라니Palazzo Salviati Cesi Mellini를 개조한 이곳은 깊은 역사와 바로크건축의 오라를 발산한다. 600년 된 거대한 기둥과 대리석 계단이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며, 아치형 천장과 정교한 몰딩이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스페인 건축가 파트리시아 우르키올라가 디자인한 살내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풍요로운 쉼의 여정이 시작된다. 총 96개의 객실은 샌드 베이지와 차분한 그레이 컬러로 마감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고대 로마의 건축자재인 코치오페스토와 트래버틴을 사용해 고풍스러운 멋을 풍긴다. 호텔 내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전통과 첨단을 결합한 스파 시설이다. 고대 로마의 공중목욕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이다. 칼다리움(온탕), 테피다리움(미온탕), 프리지다리움(냉탕)으로 구성된 로마식 목욕을 체험할 수 있으며, 사철리아소금스크럽, LED와 PEMF 펄스 전자기장을 활용한 테라피, 요가 등 탄탄한 웰니스 프로그램도 누릴 수 있다. 스파 후에 즐기는 음식 역시 건강한 휴식을 돕는다. 레스토랑 '비비움'에서 현지 유기농 식재료로 만든 이탈리아 전통 요리로 입을 즐겁게 하고, '노토스 루프톱'에서 로맨틱한 야경을 눈에 담다 보면 온전한 휴식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Piazza di S. Marcello, 00187 Rome RM, Italy

www.sixsenses.com



SIX SENSES ROME

1 베르테 알비 대리석으로 만든 반원형 바가 있는 로비 공간. 2 로마식 목욕을 체험할 수 있는 스파 공간. 3 2023년 식스 센스 로마 호텔로 재탄생한 15세기 바로크양식 건축물.

무대를 향해 마주 보다

평생 연극에 매달린 배우와 이제 막 연극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
경기도극단에서 활동하는 배우 이슬비와 그에게 연극과
연기 가르침을 받는 연극 교실 수강생 임운주. 연극 교실을 통해 만난 두 사람은 나이,
걸어온 길, 삶의 온도 모두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연극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
그들 삶에 '연극'이란 어떤 존재일까.

올곧은 배우, 이슬비

연극배우의 시작 학부 졸업 후 2006년부터 연극을 시작해 19년 정도 했고, 경기도극단에는 2017년 입단했다. 고등학생 시절 연극부 활동을 하면서 처음 무대에 섰고, 자연스레 연극영화과에 진학했다. 연극부 선생님의 "재능 있다"라는 말씀이 동기부여가 된 것 같다. 열심히 대학 생활을 했지만 연극에 대해 큰 꿈을 꾸지는 않았다. 그러던 와중 예기치 못하게 가족 중 한 명이 죽음을 맞으면서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연극을 한답시고 가족에게 소홀했던 것에 일말의 죄책감을 가지면서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막연하게나마 깨달은 거다. 이를 계기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했다. 감사하게도 훌륭한 연출가와 선후배를 만나 좋은 작업을 할 기회가 연이어 찾아왔다.

연극 연기를 한다는 것 연극은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 진입하기가 용이하다. 한국어로 쓰인 대사를 읽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악기 같은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기 위한 기술을 익히지 않아도 시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이상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 '시간'을 준비해야 하고, 또 '마음 쓸' 준비를 해야 한다. 신체를 쓰는 훈련, 대본을 파악하고 표현하는 능력까지. 연극이 친근하게 다가온 이후에는 연극에 대한 이런 올바른 이해와 접근이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연극이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연극은 혼자 하는 예술이 아니다.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 주며 퍼즐을 맞추는 팀이 되어야 한다. 팀워크가 잘 이루어질 때, 무대에서 박수보다 더 크고 값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연극 교실 경기아트센터에서 처음 시도하는 일반인 대상 수업이다. 전체 수업을 마친 후 12월 31일 낭독 공연을 할 예정이다. 이전에도 여러 단체와 개인을 가르친 경험이 있지만, 특히 연극 교실은 수강생 연령대가 다양하고 대부분 엄청난 열의를 갖고 있어 가르치는 입장인데도 오히려 배우는 부분이 많다. 오래할수록 늘 비슷한 환경과 한정적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안에 갇히고 고착화되는데, 연극 교실을 통해 바깥 사람들의 삶에 대한 태도를 접하면서 색다른 에너지를 받는다. 나에겐 값진 시간이다. 오늘 함께 얘기하는 임운주 수강생이 대본 리딩을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솔직하다. 이 안에서 직면하는 낯선 상황에 아는 만큼만 솔직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다. 나보다 훨씬 연륜있는 60대 초반 나이에도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거나 또 모른다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과하지 않은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느껴진다. 정말 배우고 싶은 에너지다. 연극 교실을 경험하는 모든 분이 자신은 물론 자신의 부족한 점까지 가감 없이 드러낼 줄 아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연극인의 삶 연극과 연기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얘기할 때 '즐긴다'라는 표현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좋아해야 하고, 좋아서 하는 사람을 이기기는 힘들다. 다만 배우가 자신의 연기에 빠져 혼자 즐거워하고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진정 즐긴다는 것은, 너무 긴장하거나 무거워지지 않고 현재 상황에 더 즐겁게 임해야 한다는 의미 아닐까. 연극은 하면 할수록 어렵다. 인문학적 깊이를 갖춰야 하는 장르이기에 깊이 있게 들어갈수록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다. 그 어지럽고 복잡한 것에서 가지치기를 해 심플하게 만들고, 수많은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순수하고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오랫동안 연극을 하면서, 최근 몇 년간 내 삶을 돌아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기에 연극을 하는 매 순간이 힘들다. 나는 올곧은 생각을 하며 잘하고 있을까. 연극은 시간을 쓰고 열정을 쏟은 만큼 비례해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간 연극 외에는 어떤 취미도 갖지 못했다. 그림, 사진, 익스트림 스포츠 등 해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매년 시계 절 내내 극장에만 있었다.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고 할까. 가장 도전해 보고 싶은 건 글쓰기, 희곡을 쓰는 일이다.

연극 교실은 이슬비 배우의 가르침과 임운주 수강생의 배움으로 이루어지지만, 수직적 관계보다는 서로 공감하고 독려하며 에너지를 교감한다.

"연극배우는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경기도극단 단원으로 연극 교실 강사를 맡고 있는 이슬비 배우.

내 삶의 연극 같은 순간 어쩌면 매 순간 다른 장르의 연극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어떤 시절은 그리스 비극처럼 처참하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희극배우가 되어 '웃프기' 짝이 없다. 현실은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인 시절이었다. 또 어느 시기는 극사실주의 연극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지금은 텅 빈 무대에 서 있는 것 같다. 곧 무대에 올릴 〈우리 읍내〉처럼 거창한 세트 하나 없이 가벼운, 그런 연극의 순간. 그간 삶의 다양한 드라마틱한 순간을 겪어왔으니 이제는 좀 덜어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또 언젠가 적당히 채워질 순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배우로서 갖는 신념 연극 연기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나는 연극배우가 '아름다운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가끔 공연 끝나고 동료에게 말한다.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야." 어떤 인물을 통해 문화를 대변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건 하나의 특별한 자유로움이다. 극의 역할에 따라 권력가가 될 수 있고, 평범한 사람 혹은 바보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배우는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난다. 그 과정에서 참담하거나 남루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가루처럼 사라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연극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이다. 매 순간 충실하게 임하면서 이 시간 자체를 충분히 누리고 싶다.

연극의 매력 처음 시작할 땐 승동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다. 연극을 할 때 나는 누구의 딸도, 누군가의 친구나 가족도 아닌, 오롯이 이슬비라는 배우다. 무대와 배우, 관객만 있다면 연극은 시작된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무대에서 배우가 별을 바라본다면 관객도 그 별을 볼 수 있다. 보수적이며 딱딱하기 그지없는 평면의 무대,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임윤주의 아름다운 도전

새로운 도전 1962년생,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쉽지 않은 60대 초반 나이다. 사회에 도움이 될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다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얼마 전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수원라디오 방송국에서 라디오 드라마 녹음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다. 좀 쑥스럽지만 의외로 잘해 내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웃음)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좋은 소설이나 시 낭독을 녹음하는 봉사 활동 단체에서 관련 수업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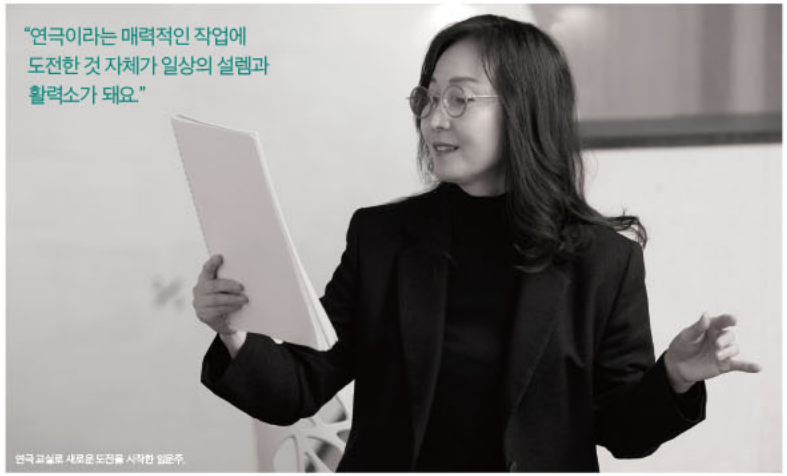
연극 교실 목소리로 표현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던 차에 경기아트센터의 연극 교실 참가자 모집 공고를 보았다. 경기아트센터 아카데미에서 다양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연극 교실도 재밌겠다 싶어 신청했다. 아마 라디오 드라마 경험이 없었다면 이 수업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거다. 작은 걸음이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올려 연극에까지 도전하게 되었다. 연극 교실은 매주 2회, 총 21회에 걸쳐 진행된다. 벌써 9회 차 수업을 마쳤는데 이론부터 스트레칭, 발성과 호흡, 기본 동작 연기 등을 배운 뒤 지금은 〈우리 읍내〉로 대사 리딩을 배우고 있다.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수업을 받으면서 게임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해 흥미가 더욱 샘솟는다. 덕분에 처음 만났을 때 서먹하던 수강생들과도 어색한 벽이 없어지며 관계가 자연스러워졌다. 연극은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협동해야 완성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있다.

4명의 경기도극단 배우가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같이 인터뷰 촬영을 한 이슬비 배우의 연극을 본 적이 있어 이미 연기 실력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갖고 있다. 탄탄한 실력에서 오는 자신감, 또 그 자신감에서 비롯된 자유로움과 여유가 느껴진다. 이슬비 배우는 연극 테크닉을 알려줄 뿐 아니라 늘 따뜻한 격려도 아끼지 않는다.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한 20명의 수강생을 포용하고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독려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배울 점이 많다.

연극이 주는 설렘 평소 연극을 좋아해 경기아트센터에서 하는 연극도 즐겨 보는 편이다. 그렇게 관람객 입장으로만 연극을 접하다 직접 배우니 새로운 기분이 든다. 60대가 되고 보니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감정에도 무뎌진 게 사실이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 습득력이 떨어지다 보니 모든 면에서 약간의 두려움도 갖게 된다. 그런데 연극 교실에 참여하면서 아주 오랜만에 가슴 떨리는 설렘, 또 잘해 보고 싶은 간절함이 생겼다. 내 모습에 스스로 놀랄 정도다. 일주일이 너무 즐거워졌다. 늘 수업을 기다리다 약속 시간이 되면 얼른 준비하고 빨리 가서 뭐든 조금이라도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다. 이 매력적인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상의 활력소가 된다. 그동안 내가 모르던 새로움을 발견하면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기분이다.

내 삶의 연극 같은 순간 지금의 나에게는 매주, 매일이 연극 같은 시간이다. 올해 101세인 어머니가 계신데, 주중에는 도와주는 분이 있지만 금요일과 주말에는 내가 온전히 어머니를 돌봐 드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보면서 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가는구나 생각한다. 정말 미운 감정이 들 때도 많고, 매 순간 안내의 연속이다. 어쩌면 어머니 앞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하고 늘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한다. 글 이정주 사진 박우진

"연극이라는 매력적인 작업에
도전한 것 자체가 일상의 설렘과
활력소가 돼요."



연극 교실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임윤주.

읽고 듣고 사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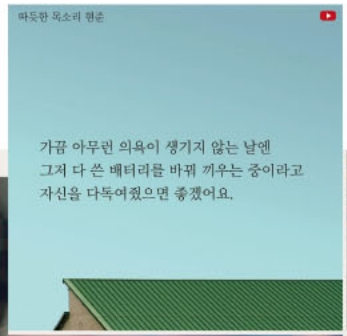
아수선한 마음을 다독이는 신간 세 권과 온기 있는 목소리로
치유의 이야기를 전하는 유튜브 채널을 모았다.

〈화가가 사랑한 밤〉
'화가가 사랑한 것들' 시리즈로, 빈센트 반 고흐, 에드바르 뭉크, 칼 라르손 등 16인의 거장이 그린 101가지 밤 이야기를 엮었다. 정우철 도슨트의 해설로 단순히 작품의 예술적 분석이 아닌, 작품 뒤에 숨은 화가의 삶과 예술을 한 편의 이야기로 풀어낸 점이 눈길을 끈다. 결국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던 거장들의 시선을 통해 마음속 어둠을 몰아내고 잔잔한 위로를 얻어보길.

〈도망친 곳에 낙원이 있었다〉
균형이 무너진 마음을 돌보고 싶다면 추천하는 신간 에세이다. 불의의 사고로 도시를 떠나 숲속 사원에 들어가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은 남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책이다. 수도승이 되어 자신에게 닥친 슬픔, 욕망 그리고 자기 의심을 딛고 일어서는 일련의 과정을 유쾌하게 풀었다. 우리는 인간의 욕망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을 지켜보며 비워낼수록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남자의 목소리
빗소리나 수면 음악보다 잠을 부르는 소리는 바로 어른이 들려주는 옛날이야기가 아닐까. 유튜브 채널 〈그 남자의 목소리〉는 문화, 에세이, 소설 등 다양한 문학을 깔끔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들려준다. 끝까지 보기 어려운 역사서 〈삼국지〉부터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탈무드〉, 자속 노화법을 비롯한 이 시대의 건강 필독서까지 두루 다룬다. 영상을 잠시 켜두는 것만으로 편식 없는 독서 생활이 가능하다.

여배우의 책방
〈여배우의 책방〉은 구독자 21만 명을 보유한 낭독 채널이다. 세계 고전문학을 읽어주는 채널로, 이미 탄탄한 팬층을 두고 있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적절한 호흡, 선명하게 전달되는 딕션, 그리고 연기력까지 더해져 듣는 내내 이야기에 몰입하게 된다. 꼴잠 자기 위해 무심코 재생했다가 밤을 새웠다는 댓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따뜻한 목소리 현준
출판사의 서면 허락을 얻어 책의 일정 부분을 자분자분 낭독해 소개한다. 영상은 온기 있는 목소리가 전부인데도 '동화책 모음 4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훌쩍 넘길 만큼 사랑받고 있다. '신혼이지만 각방을 씁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처럼 다양한 주제의 책 낭독 영상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건축기와 함께 걷는 청와대, 서촌, 북촌 산책〉
디지털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천천히 걸으며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무수한 풍경과 공간을 바라보고 사유하는 인문 산책을 제안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듯 아닌지 모르게 낯선 동네인 청와대 앞대, 서촌과 북촌의 조붓한 골목이 품은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한 권에 담았다. 시간과 역사가 켜켜이 쌓인 오래된 장소부터 힛한 힙핑 플레이스까지 모조리 다룬다. 초보 도시 산책자를 위한 최고의 길잡이가 되어줄 책이다.

고독한 낭독회
역사·소설·인문·철학 서적을 주로 읽어주는 채널로, 한 콘텐츠당 재생 시간이 40~50여 분으로 다소 긴 편이다. 누적 조회수가 가장 높은 콘텐츠는 '잠 잘 때 듣는 조선왕조실록', '잠 잘 때 듣는 삼국지', '오십에 읽는 논어'다. 특히 〈논어〉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말이 많이 담겨 있는 만큼, '오십에 읽는 논어'는 아침을 여는 영상으로 부족함이 없다.

채널문장
온라인 문학 플랫폼 '문학광장'이 운영하는 이 SNS 계정은 오로지 목소리만으로 문학의 매력을 전한다. '문장의 소리'와 '문학집배원'이 대표 콘텐츠인데, '문장의 소리'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이면 찾아오는 문학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한편, '문학집배원'은 시인과 작가가 직접 선별한 아름다운 문장과 시를 격주마다 배달해 주는 콘텐츠다. 올해부터는 시인 김언과 소설가 천운연이 문장과 시를 배달하기 시작했다. 낭독의 전문은 유튜브 채널 〈문학광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ight and Shadow

지금, 국내외에 열풍을 몰고 온
한국문학과 K-팝의 빛과 그림자.

K-팝, 왕관의 무게

원고를 청탁받은 후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생각했다. 왕관의 무게? K-팝이 왕관을 쓰고 있나? 그렇다면 왕관의 정체는? 아무래도 세계적 위상일까? 냉정히 말해 여전히 일부 아티스트의 성과를 제외하고 K-팝은 로컬 음악이다.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하이브 방시혁의장의 말에 따르면 K-팝은 레틴 음악이나 아프리카 음악처럼 장르의 슈퍼 팬이 현저히 적다. 아티스트별로 배타적이고 강한 팬덤이 존재하지만, 이 때문에 팬덤 외부 사람은 관심을 갖기 어렵기도 하다. 물론 전에 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진 상황이긴 하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떨까. 확실히 K-팝은 왕관을 쓰고 있다. 블랙홀처럼 국내 음악 시장을 빨아들인 지는 오래됐다. 당장 스트리밍 서비스 차트만 봐도 상위권에 K-팝, 임영웅, 드라마 음악을 제외한 나머지 음악은 찾기 힘들다. 소위 '음악성'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레이블도, 혹인 음악을 하던 레이블도 투자를 받기 위해 K-팝 아이돌을 제작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됐다. 언젠가부터 주변의 음악가, 디자이너, 뮤직비디오 감독 등 여러 창작자의 이름이 K-팝에서 보이기도 한다.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해야 하는 K-팝의 운명 때문이다. 이들이 자신의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도 상당 부분 'K-팝 머니' 덕분이다. 그럼에도 K-팝 작업에 참여한 창작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불합리한 점이 많다. 음악 작업에 참여하면 저작권료와 관계없이 작업료를 주는 게 관례이나, 일부 K-팝 기획사는 많은 저작권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작업료를 주지 않기 시작했다. 한 곡에 여러 인원이 참여하는 특성 때문에 완성된 작품이 조각조각 나뉘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쓰이는 경우도 많다. 회사에서 지나친 통제권을 갖는 것도 문제다. 무리한 일정과 수정 요청이 이어지고, 본인이 작업했음에도 그에 관한 이야기를 외부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 창작자에게 창작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를 주기보다 재료나 부품처럼 갈아 끼워 쓰는 행태다.

많은 이가 K-팝은 복합 예술이라 한다. 음악뿐 아니라 안무, 뮤직비디오, 패션이 큰 역할을 하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K-팝 기획사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를 제외한 나머지 크레디트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다. 매달 언론사에서, 연말이면 방송사에서 대중음악 시상식을 열지만 K-팝 그룹이나 멤버 말고 참여한 나머지 창작자가 상을 타는 일은 없다. 그래미 어워드는 엔지니어에게 상을 수여한다. MTV 어워드는 감독, 미술, 안무, 촬영, 편집, 시각 효과 등에 따로 상을 수여하기도 한다. 한국에 그들에게 상을 주는 시상식은 없다.

얼마 전 하이브의 '위클리 음악 산업 리포트'가 유출됐다. 이 문건은 하이브의 C레벨 임원에게만 공유됐다. 문건에서 바라보는 K-팝이라는 음악 산업은 이렇다. 아이돌의 외모, 팬덤의 반응, 차트 성적, 타 아티스트와의 비교 및 경쟁. 음악 이야기는 거의 없다.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음악·문화평론가로 이름을 알린 후 하이브 산하 콘텐츠 플랫폼 〈위버스 매거진〉 편집장을 맡은 이다. 정작 왕관을 직접 만드는 결정권자들에게 음악이나 미술 등 작품으로서 K-팝은 의미가 없는 걸까.

유행은 변하기 마련이니까. 10년 전부터 K-팝은 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전히 K-팝은 망하지 않고 덩치를 키워 세계로 향하며 영원한 제국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어디에도 영원한 제국은 존재하지 못했다. 하이브에서 유출된 문건을 보며 이제 정말 K-팝이 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욕망과 경쟁만 존재할 뿐, 문화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K-팝이 쓴 왕관의 본질이 무엇이고, 누가 만들었으며, 왜 사람들이 왕관을 씌워주었는지 고민하고 돌아볼 때가 아닐까.

글 하박국. 음악평론가, 독립 음반사이자 음악 소개 매체인 영기획YOUNG,GIFTEDANDWACK Records 대표. 아티스트가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일러스트 최익건

한강 신드롬, 노벨 문학상 그 이후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문학에 대한 세계 독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을 찾는 해외 독자가 많아지면서 품절 대란이 빚어지고, '그렇다면 어떤 한국 작가의 작품을 보면 좋을까?'라는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16년 한강 작가의 부커상 수상 이후이긴 하지만, 그 전부터 영화와 드라마, 한국 음식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다. 한국 작가의 작품을 생생한 원어 느낌 그대로 읽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독자도 늘고 있다고 하니,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더 다채로운 한국 문학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번역가를 향한 아낌없는 지원'이다. 〈채식주의자〉를 한국어 공부 3년 차에 영어로 번역한 젊은 번역가 데버러 스미스의 부커상 동반 수상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한국인 최초 부커상이라는 쾌거는 한국문학에 대한 번역가의 열정과 사랑이 이루어낸 아름다운 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영어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한국문학이 번역될 수 있도록 한국문학번역원뿐 아니라 여러 출판사에서도 번역가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기를 바란다. 또 작가들이 마음껏 창작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그 어떤 제약이나 압박도 느끼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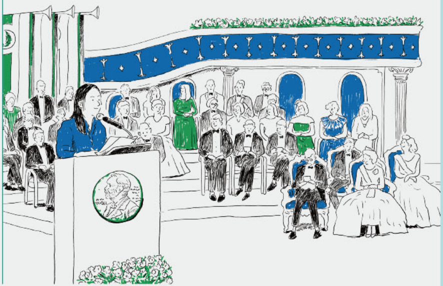
한강 작가의 작품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아픔을 절절하게 형상화함으로써 전 세계 독자의 열광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채식주의자〉는 아버지가 반려견을 죽이는 장면을 목격한 후 육식에 대한 트라우마

를 잃게 된 주인공 '영혜'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얽힌 참혹한 역사적 트라우마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고결함을 잃지 않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제주4·3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작품 한가운데 놓여 있다. 〈흰〉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안 되어 세상을 떠난 아기, 한강 작가의 친언니를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가 그려진다. 한강 작가는 이렇게 트라우마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을 향해 잠깐 도망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상처를 똑바로 대면하는 삶'을 권한다. 우리는 그렇게 등장인물의 가슴 시린 상처를 대면함으로써, 상처로부터 끊임없이 도망간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더 크고 깊고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문학의 힘은 인간이 지닌 눈부신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이다.

글쓰기 수업을 할 때마다 '글 쓰는 것은 참 행복하고, 멋진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 '글쓰기가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 독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정말 힘들지만, 그 고통보다는 기쁨이 훨씬 크다고. 글쓰기라는 노동은 매우 어렵지만, 결국 글을 쓰지 않으면 절대 만날 수 없는 세계를 만나는 일이므로 궁극적으로는 황홀한 것이라고. 이렇듯 기쁨과 슬픔이 복잡하면서도 아름답게 뒤섞인 글쓰기의 매력을 설명하는 것이 매번 어려웠다. 나는 사람들이 글쓰기에 숨겨진 이 눈부신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곤 했다. 그런데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글쓰기란 이토록 아름답고, 멋지고, 눈부신 일'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통쾌하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가 되었다. 한강 작가는 한결같이 오직 글쓰기의 길만 걸어왔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뒤에도 그런 삶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직 글쓰기를 통해 인간이 지닌 가장 눈부신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는 일, 그것이 문학이 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글 정여울_ 《문학이 필요한 시간》 저자, KBS '정여울의 도서관'과 네이버 오디오클립 '월간 정여울' 진행자. 문학의 아름다움과 글 쓰는 것의 기쁨을 알리고 있는 작가다.



GGAC STORY

Zoomin
영상으로 만나는 공연예술
경기아트센터 대외사업팀
김준호 PD와의 만남

GGAC News
이달의 경기아트센터 소식

Calendar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의
공연·전시일정

Epi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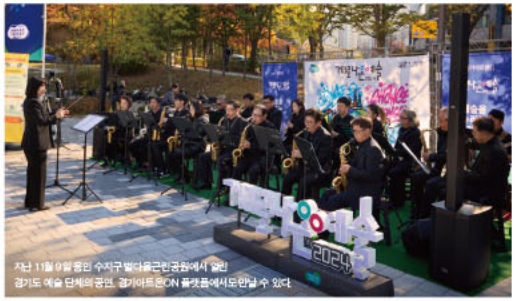
영상으로 만나는 공연예술

2024년 12월부터 경기도예술단을 비롯한 경기도 공연예술인들의 무대를
전용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현장감 넘치는 영상으로 즐길 수 있다.
'경기아트온ON' 사업을 맡아 땀 흘리고 있는 경기아트센터 대외사업팀 김준호 PD를 만났다.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경기아트센터에서는 2014년 무대기술팀 음향 업무를 처음 맡아 2년 정도 일하다가 이후 다른 기관으로 옮겨 무대 기술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꽤 오랜 시간 공연 관련 일을 했지요. 이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경력을 쌓았고, 2018년 경기도예술단 기획실 업무를 맡으며 다시 경기아트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공연기획팀을 포함해 여러 팀을 거쳤습니다. 현재 대외사업팀 소속으로 경기예술방송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하고 계신 경기아트온ON은 어떤 사업인가요?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에서 기획하고 진행하는 공연 영상 제작을 지원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경기도의 모든 공연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경기도예술단(경기도극단, 경기도무용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공연뿐 아니라 도내 여러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경기도 예술 단체, 초·중·고등학교 국악 동아리 학생의 무대, 그리고 장애 예술인의 예술적 성장과 새로운 가능성을 담은 공연 중 영상으로 제작하면 좋을 만한 것을 선별합니다. 제작한 영상을 경기아트온ON 홈페이지의 콘텐츠로 구축해 관객에게 온라인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죠. 저는 이 모든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총괄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인 경기도예술단의 공연과 달리 아마추어인 경기도 예술 단체, 학생 예술 동아리, 장애인 예술 단체의 공연 영상 제작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 출연진 중 프로와 다르지 않을 만큼 실력이 뛰어난 분도 있지만, 공연장이 다른 경우에는 아무래도 결과물도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경기도예술단의 공연은 전문 공연장에서 열리는 실황을 담다 보니 사전에 기획된 공연 환경을 기반으로 각 담당자와 조율해 좀 더 다양한 구도와 영상미가 느껴지는 역동적인 작품이 나오죠. 반면 경기도 예술 단체나 학생 예술 동아리, 장애인 예술 단체의 영상 작업은 제작 의도, 기획, 무대연출 등 전체 환경을 고려해 영상만이 아닌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에 집중해야 하는 점이 다릅니다. 경기도예술단의 공연처럼 프로무대는 아닐지라도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임하는 공연예술인들의 모습을 최선을 다해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을 제외하고 큰 차이를 두지는 않아요. 어떤 공연이든 한결같이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난 11월 9일 중인 수지구 빌다움근린공원에서 열린
경기도 예술 단체의 공연. 경기아트온ON 플랫폼에서도만날 수 있다.

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이 업무를 맡으면서 느낀 건 미디어와 굉장히 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공연 영상과는 접근을 달리해야 해요. 흥미를 일으키는 요소를 파악하고, 관심을 끌 만한 내용과 제작하는 콘텐츠를 어떻게 접목해야 할지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내가 이용자라면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이 가는 콘텐츠는 무엇일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기존 홈페이지(www.ggarton.or.kr)를 편의성과 직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 중입니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상을 300개 이상 업로드해 콘텐츠를 쌓아가고 있는데, 12월부터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새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또 이 온라인 플랫폼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경기아트온ON 전용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예술인과 예술 단체 누구나 이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분에게 예술 활동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발돋움해야죠. 모두가 찾아오고 싶어 하는 플랫폼이 되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모든 경기도 예술인의 모습을 더욱더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글 이정주 사진 박우진

영상 제작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공연 현장에 나온 김준호 PD.

'GGAC 커·플마켓' 첫 시범 운영

'GGAC 커·플마켓'이 11월 2일 경기아트센터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경기아트센터 앞뜰 무대에서 첫 시범 운영되었다. 'GGAC 커·플마켓'은 'GGAC 커뮤니케이션 플리마켓'의 약자로, 경기아트센터 임직원 간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지향하는 장이자 일상 속 친환경 운동 실천을 위한 소통을 시도하는 장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았다. 올해 시범 개장한 'GGAC 커·플마켓'에는 총 7팀의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이 판매자로 참여했으며, 임직원과 도민 약 120명이 방문했다. 이날 방문객은 대부분 가족 단위로 들러 플리마켓을 자유롭게 둘러보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열린 이벤트에도 참여했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GGAC 커·플마켓'은 내년과 후년에도 개장할 것을 기약하며 폐장했다. 판매자로 참여한 한 임직원은 "오랜만에 힐링되는 시간이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GGAC NEWS

경기아트센터의 최근 소식을 전한다.

2024년 제3차 신규 직원 임용

경기아트센터의 신규 직원 채용(경기도 통합채용)에 최종 합격한 신규 직원 6명이 11월 1일 임용되어 4일간 하반기 신규 입사자 대상 온보딩 교육을 받았다. 11월 7일 자로 인사 발령이 난 이들은 한혜지(공연 관리(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관리 6급), 박준영(공연 관리(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관리 7급), 김도훈(공연 관리(공연 기획), 관리 7급), 김준기(무대기술(음향), 기술 7급), 김규랑(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주임 PD), 예능 5급), 노홍상(환경관리지원(경비), 공무 1급)이다. 총 266명이 지원한 이번 채용은 최고 경쟁률 88:1을 기록할 정도로 치열했다.

경기아트센터

아트플러스 회원제 모집

GYEONGGI ART CENTER ART PLUS
MEMBERSHIP RECRUITMENT

내 삶에 예술을 더하다,
ART PLUS

문화의 새로운 차원,
아트플러스와 함께하세요.

http://plus.ggac.or.kr

문의
031 230 3245 / artplus@ggac.or.kr

DEC

CALENDAR

1 (S)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오페라 〈라 보엠〉 15: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4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내한 공연:지브리, 재즈를 만나다 17: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 (M)
2024 Classic of My Playlist 〈유태평양×두번째 달〉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3 (T)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4 (W)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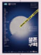
5 (T)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6 (F)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2024년 경기도무용단 레퍼토리 시즌 〈세종〉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7 (S)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2024년 경기도무용단 레퍼토리 시즌 〈세종〉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8 (S)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2024 김창옥 토크콘서트 시즌4 - 수원 13:00,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9 (M)



10 (T)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11 (W)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12 (T)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 시리즈 V 〈바로크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3 (F)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 시리즈 V 〈바로크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19: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4 (S)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 - 수원 18: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5 (S)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16 (M)

17 (T)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18 (W)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19 (T)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20 (F)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21 Sat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2024 Classic of My Playlist 〈Christmas Wish of Moon〉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레퍼토리 시즌 2024 〈송년음악회 : 사유하는 계절〉 16:00 경기국악원 국악당
더 매직스타 전국 투어 콘서트 - 수원 15:00, 17: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2 (S)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더 매직스타 전국 투어 콘서트 - 수원 14:00, 18: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3 (M)
연극 〈헤다 가블러〉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4 (T)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2024 어반자카파 전국 투어 콘서트 열다섯 번째 '겨울' 19: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5 (W)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2024 어반자카파 전국 투어 콘서트 열다섯 번째 '겨울'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6 (T)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27 (F)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28 Sat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2024 경기아트센터 송년음악회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4 연말 특선 가족 뮤지컬 〈신데렐라〉 - 수원 11:00, 14:00,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9 (S)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2024 심수봉 전국 투어 콘서트: 꽃길 - 수원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30 (M)
뮤지컬 갈라 콘서트 〈Holiday〉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31 (T)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JAN

1 (W)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2 (T)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3 (F)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4 (S)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5 (S)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6 (M)

7 (T)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8 (W)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9 (T)
BBUCK 뻑: On&off 12:00~20:00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10 (F)

11 (S)

12 13 14 15

18 (S)
신년음악회(가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QR 코드를 통해서도 자세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티켓 문의 031-230-3441~2(평일 10:00~19:00, 주말10:00~17:00)
- 상기 공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관람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 공연 031-230-3261~3267, 3270~3271 · 경기도극단 031-230-3302~4
- 경기도무용단 031-230-3311~4 ·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031-289-6471~4
-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031-230-3321~5

예술과 만나다

〈예술과만남〉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SNS,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경기아트센터의 다채로운 공연 소식과 숨은 이야기,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화 예술의 가장 핫한 이슈를 만나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경기아트센터 예술과만남'
경기아트센터 대표 매거진 〈예술과만남〉 콘텐츠와 프로모션 소식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GGAC.OFFICIAL
경기아트센터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감 넘치는 공연 열기를 전합니다. 풍성한 SNS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GGAC.OFFICIAL
경기아트센터 의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입니다. 경기아트센터에서 마련한 문화 예술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OUTUBE.COM 깍! TV 경기아트센터
우리 삶의 예술, 경기아트센터의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내 손안에서 펼쳐지는 명작 공연 실황, 브이로그, 인터뷰 등 다양한 현장 소식과 공연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M.POST.NAVER.COM/GGARTS
지면과 SNS로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다양한 글과 사진, 포스트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예술과만남〉은 국악과 클래식, 연극 등 경기아트센터의 각종 공연 소식과 일정, 인터뷰, 뉴스 정보 등 다방면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매거진입니다.
공연과 콘텐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magazine@ggac.or.kr

김수현 제공

왼손의 품격

•

이훈이 무대위로 천천히 걸어가 피아노 앞에앉았다. 오른팔과손은 무릎 위에미동 없이놓아두고,
자연스레왼손만 건반 위에올리자 한 손 연주임이 믿기지않을 정도로 유려하고풍부한 선율이 흘러나왔다.
세상에 이렇게귀하고 아름다운 왼손이또 있을까. 알렉산드르 스크랴빈의 〈왼손을 위한 녹턴Op. 9〉.
괜스레숨죽이고 바라보던자신이머쓱할 정도로연주는 훌륭했다. 훌륭하다, 잘한다는 표현보다는 전신을 깊이파고드는
울림이느껴졌다고 하는 게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인생에예기치못한 불행이찾아온다면 과연 그처럼단단한 마음으로
삶과꿈을 포기하지 않고긍정의 삶을 살아갈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희망의에너지를 전할 수있을까.
뇌졸중으로인한 장애를 극복하며진정 기쁨의 인생을살고 있다는피아니스트 이훈의 말이오래도록가슴에 남는다. 글 이정주

변화의 중심 가능의 경기

GGAC 경기아트센터 GYEONGGI ARTS CENTER

24.11.15.–
25.01.19.

경기아트센터 **갤러리**

전시문의 **031-230-3267**

고준
공준영
구준엽
구태훈
권지안(솔비)
김경훈
김완선
미미
박수환
박윤
사라주
신예진
심형준
안젤리나 다닐로바
에릭
우현민
유광열
윤송아
이건수
이민우
어워드 리
이지은(쥬니)
이태성
임혁필
장완규(징가)
장혜진
정기고
정유나
최재용
황찬성
BOB DYLAN
JOHNNY DEPP
BAE BAE
DEPS
+
HypeN Artists

SURVIVAL ZONE 생존구역 SURVIVAL ZONE

예술가들이 전하는
뻑! 난 지구에서의
생존(生存)이야기

presented by **bbuck on&off™**

생존구역

ARTVERSE HYPE LIFESTYLE hypeN LAY Village GREENPEACE URBAN FOREST VIDO zingabin PAPER BEACH bbuck on & off

경기아트센터
GYEONGGI ARTS CENTER

경기도
GYEONGGI-DO